ISSN 2383-9872

밑 불 이 되 고 불 씨 가 되 자

2017년 여름

노들마당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표지그림**
노들장애인야학
김장기 학생의 작품입니다.

노들장애인야학 24번째 생일 잔치

2017년 8월 8일 마로니에공원에서

노들바람 이야기구성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03 **[고병권의 비마이너]** 쓸모없는 사람
06 **[장판 핫이슈]**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천명'하라!
09 두들러(doodler) 활동기
12 그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

14 **[노들아 안녕]** 이현아
15 **[노들아 안녕]** 이은애
16 **[노들아 안녕]** 김지윤
18 **[노들아 안녕]** 이승헌

20 故박종필 감독을 추모하며
22 나의 금관예수 박종필 감독
24 당신의 삶은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26 **[형님 한 말씀]** 사랑하는 박종필 동생에게

27 와빠? 노들!
29 평화로운 밥상을 위하여 급식항쟁
32 여랏차차! 노란들판 여직원 여기 여기 모여라!
34 '공생공장'을 말해줘~

36 **[교단일기]** 교사, 학생이 함께 배우는 과학수업
38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인연
40 김포에도 장애인야학이 생겼습니다!
42 낭독 모임 술독
44 노들장애학궁리소, 너는 내 운명
48 노들에서 생각해본 〈연극의 3요소〉
55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말입니다.

제 111호 2017·8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안연주 정소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송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518-1571)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노들바람을 여는 창 -

어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을 행사합니다. 장애인운동을 만나고 '갇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로 내 안에는 무언가가 묵직하게 똬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 가보았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모여서 지내는 곳은 어떤 모양새일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 아래 한적한 마을,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커다란 건물 두 동이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펜스가 둘러쳐진 운동장이 있었고,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 지어 운동장을 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건물 한 동은 정신병원, 한 동은 정신요양원이었는데요.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한평생 손쉽게 가두어 둘 수도 있겠다 하는 불길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신요양원 한 건물 안에서 지내는 사람은 300명에 가까웠습니다. 세 개 층에 나뉘어져 하루 세 번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운동장을 돌면서 내일을 맞는 삶들. 운동장에 나가는 것이 자유이고, 외출인 삶들. "밖에 나가면 순경이 잡아가", "집에 가고 싶어" 갇힌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가 소화되지 않은 채, 또 다시 똬리를 틀고 살기 시작합니다.

요즘 노들야학은 낮 시간이 무척 핫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생활인들이 야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설 비리와 인권 침해가 있었던 이 시설은 운영진이 바뀐 뒤로, 운영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져 이제 생활인들의 탈시설을 고민하며 새로운 실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실천의 한 지점에 노들이 있는 것인데요. 하루 세 시간의 수업을 이뤄내기 위해, 야학은 요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오래 갇혀 지낸 이 사람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해독하려 애쓰며, 걱정과 실수를 거듭하는 큰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덧 인강원 분들이 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가 영상으로 좀 찍어주면 좋겠다. 누군가의 말에 지난 7월 28일 세상을 떠난 박종필 감독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노들에 더없이 소중했던 박종필 감독님. 명복을 빕니다.

VOICEYE
voiceye.com

고병권의 비마이너

쓸모없는 사람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제 몇 년간의 방랑(?)을 마치고,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2년 전 영국 여왕의 어린 시절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시끄러웠다. 엘리자베스 2세가 어머니, 삼촌, 여동생과 함께 나치식 경례를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당시 엘리자베스의 나이는 일곱 살이었다고 한다. 왕실 측은 당시 어린 여왕이 TV에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며 놀고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확실히 특정 몸짓을 근거로 해서 일곱 살 어린아이에게 나치즘을 추궁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 아마 이 영상을 문제 삼은 이들도 어린 엘리자베스의 사상을 검증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의심한 것은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영국 왕실 자체였다. 몇몇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독일계 혈통의 영국 왕가는 독일에 많은 친인척을 두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히틀러를 지지했다고 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앞서의 영상에도 등장하는 엘리자베스의 삼촌인 에드워드 8세였다. 비록 한 해를 채우지 못하고 왕위를 내려놓았지만 그는 어떻든 영국의 왕이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을 찍을 때인 1933년은 물론이고 전쟁이 발발한 1939년에도 그는 나치를 지지했다. 1937년에는 직접 히틀러를 만나기도 했다. 지금으로서는 그가 개인적 일탈을 한 것인지, 영국 왕실 자체의 어떤 성향을 보여준 것인지 알 수 없다.

영국 왕실인물들의 나치식 인사(1933)를 다룬 『더선』기사의 사진(2015)

두 나라 지도자들의 미묘한 연관에 대해 들었을 때, 내게는 근대 영국의 대표적 이념인 공리주의와 독일 나치즘 사이에도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참고로 철학자 니체는 공리주의 영국을 근대성(현대성) 이념의 발원지로 지목했다). 본격적인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 터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심이 최근 더욱 강해지고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 두 이념은 아주 다르

다. 영국의 공리주의는 낭만적 영웅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판단을, 예외보다는 규칙을 중시한다. 행복조차 현실적 효용을 통해 접근했던 매우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이념이다. 이런 공리주의를 히틀러를 영웅시하고 아리안종의 우수성을 설파하며, 수백만의 유태인을 가스실로 보낸 광기적 행동과 연결짓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를 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헷갈리는 지점들이 자꾸 나타난다. 나치의 선동적 연설만이 아니라 공리주의자들의 합리적 계획 속에서도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제거, 인간 개량을 위한 유용성 평가 등을 발견하거나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러미 벤담이 구상한 수용소도 그런 예들 중 하나다. 이 수용소는 쓸모와 비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인간을 그런 눈으로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부만 축내는 쓸모없는 인간들, 생계 하나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벤담은 교육이나 도덕적 호소는 부질없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쓰레기들'은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시민으로 개조되어야 한다.

1920년대 독일 헌법학자 칼 빈딩은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이어간 사람이다. 그는 '인간개조'가 아니라 '인간처분'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처음에 그가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인 주제는 자살과 안락사였다(빈딩의 논의에 대해서는 조르지오 아감벤의 『호모사케르』 제3부를 참고하라). 그에 따르면 '자살'은 일종의 살인이지만 처벌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행사한 주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한다는 것보다 더 존엄한 것이기에, 그 존엄성을 위해 누군가 생존을 그만두기로 결정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인간에게는 살만한 가치가 없을 때 삶을 폐기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빈딩은 한 발 더 나아갔다. 만약에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고 온전한 의식도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떤가. 자기 삶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에게 연명 치료를 해야 하는가. 삶의 가치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면, 그리고 '살 만한 가치가 없을 때 삶을 폐기할 권한'이라는 게 인정된다면, 그것을 행사할 주권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것일까.

빈딩은 '살 만한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즉 그저 생존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 너무 많은 자원을 쓰며, 생존만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 탄광 등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자원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자살과 안락사에서 시작된 빈딩의 문제 제기는 이로써 쓸모없는 인간에 대한 처분의 필요성과 맞닿게 되었다.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을 죽이기 위해 가스실로 개조된
독일 뷔템베르그의 그라펜네크 성

히틀러는 빈딩의 사고를 받아들였다. 그는 삶의 존엄을 잃어버린 채 생존만을 이어가는 사람을 안락사 시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살 가치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삶의 효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점차 확대 적용했다. 그렇게 해서 독일 각지의 정신병원에서 온 정신질환자들 6만 명이 간단한 검사를 거친 후 가스실로 들어갔다. 아우슈비츠의 유태인들은 그 다음에 불려온 사람들이었다.

지난 주 나는 경기도의 한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을 둘러보고 왔다. 나무들이 높이 자란 숲 속에 들어앉은 산뜻한 건물. 직원들도 친절했고 장애인들도 모두 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금세 드러났다. 간식이 들어오자 수십 명이 조용히 줄지어 다가왔는데 놀랍게도 명부에 적힌 순서와 단 한 명도 다르지 않았다. 직원이 간식을 들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당사자가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인터뷰한 장애인은 "이곳은 정말 자유롭다"면서도 마당에 있는 벤치에는 혼자서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었다. 거기로 가는 걸 "막는 사람은 없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알쏭달쏭한 말만을 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나처럼 쓸모없는 사람을 거둬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감히."

시설장은 '여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죽는 소리를 하고,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약 때문인지 훈련 때문인지, 스스로를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라고 여겨 숨죽이고 있었다. 운영자들의 선의를 최대한 인정한다고 해도,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직원의 일감에 불과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직원들 사이에만 존재했지, 거기 수용된 장애인들과는 아니었다. 장애인들의 생활에 대한 고민은 철저히 관리의 효율성에 맞춰져 있었다. 효율적 일처리를 위해 사물들을 손질하고 정돈해두듯 그들은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왔음에 틀림없다. 기상, 세면, 식사, 간식, 그 모든 신호에 소리 없이 반응하도록, 그리고 마당의 벤치 같은 곳에는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절대 갈수 없도록 말이다.

해당 시설을 함께 방문 조사한 동료 말을 들어보니, 시설장은 스스로를 장애인 가족을 대신하고 사회를 대신해서 큰 짐을 떠맡은 사람처럼 간주하고 있었다. 그는 정부 지원도 충분치 않고 사람들의 존경도 예전 같지 않아 이젠 보람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짐을 떠맡기 전에 그가 운영하는 시설이 장애인들을 짐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을 짐짝처럼 만들어 쌓아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이 떠오른다. "불필요하고 쓸모없고 버려진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들은 눈 밖에 있다." 그리고 눈 밖에 있는 존재들은 점차 "도덕적 공감의 세계에서 분리된다." 눈 밖에 있는 것들은 치워버리기도 쉽다. 저 쓸모없는 존재들, 저 짐짝 같은 존재들을 언제까지 떠안고 있어야 하는가. 누군가 심중의 말을 내뱉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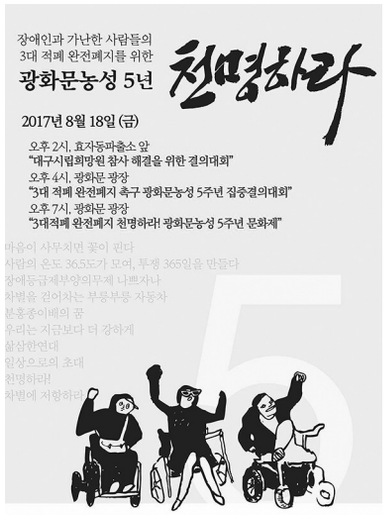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가스실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바우만이 썼던 표현처럼 '아직까지는' 말이다. 우리는 그저 수만 명을 시설에 격리해 둔 채 사회적 안전, 시설의 효용과 비용 같은 것을 계산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시설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은, 아직, 아니라고 해도, 이런 시설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끔찍한 사람들이다.

장판 핫 이슈

문재인정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천명'하라!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달리기와 등산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한다.
글쓰기도 더 많이 익숙해지고 잘 하고 싶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어려워한다. 눕자마자 잠드는 사람이 제일 부럽고,
푹 자는 게 인생 최대 숙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가히 위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또 체감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OECD국가 통계 중 안 좋은 것으로 많은 영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한국 사회입니다.

출산율은 제일 낮고(한국 1.23명 / OECD 평균 1.74명),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도 제일 낮으며(한국 72.54점 / 스페인(1위) 117.23점), 반대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은 제일 높습니다(한국 98% / OECD 평균 82%).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하기에 산재 사망률은 제일 높고(인구 10만명 당 한국 20.99명 / 영국 0.7명), 연간 노동시간은 최고 수준(한국 2,090시간 / OECD 평균 1,776시간)입니다. 사회복지는 최하 수준(GDP대비 사회복지 지출 한국 9.6% / OECD 평균 22.1%)이고, 자살률은 1위(인구 10만 명당 한국 33.3명 / OECD 평균 12.6명)이며, 노인 빈곤율 1위(한국 49.3% / OECD 평균 13.5%), 노인 자살률도 1위(65세 이상 10만 명당 한국 80.3명 / OECD 평균 20.9명)인 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실화냐?"라고 할 수 있을, 안 좋은 의미로서 한국은 천명(擅名)[1]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에서 '장애'와 '빈곤'은 천명(賤名)[1] 그 자체였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 비극으로, 감내해야 할 운명으로 짊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마지막 공과금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가 그러하였고,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이가 수급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애인 가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사연은 달랐지만, 죽음으로 내몰리고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같았습니다. 바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는 오랜 적폐. "제도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제 이 씨 할머니의 말처럼, 나쁜 제도로서 천명(擅名)해온 그것이 바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입니다.

이 씨 할머니의 죽음이 있었던 바로 그해 2012년 여름,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광장 지하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1,000일이 지났으며 그 뜨거웠던 계절을 만 5년, 햇수로는 6번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함께 해온 지난 시간동안 우리는 힘을 모았고 더 단단해졌으며 연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제도에 저항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천명(天命)[2]은 확인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제도를 왜 폐지해야 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알렸고, 13개의 영정 사진이 우리 앞에 놓이던 순간에도 우리는 저항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연인원 천만 명의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서도 많은 이들의 공감과 연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두 제도의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와 적폐 청산을 요구했던 촛불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문재인정부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우리가 그 어두운 밤 광장에서 촛불을 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한 것

1 천한 이름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이름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2 타고난 수명

은 바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투쟁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19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더욱 크게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천명(闡明)[3]했습니다. 그 의지들이 보여준 것은 1,800일이라는 투쟁의 시간과 기록, 그리고 지난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에 광화문광장으로 전국에서 모인 1천 명의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이 되어가고 광화문 농성 투쟁 5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악랄하게 천명(擅名)해온 두 제도의 폐지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빈곤문제 1호 과제로 대선 시기 복지영역의 가장 큰 화두였던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본인의 입으로 우리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그것도 연말부터)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2019년 의료·생계급여에서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소득 하위 70%인 가구의 경우에만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누가 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지 가난을 선별하는 방식의 '인구학적 폐지'가 아니라 '급여별 단계적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나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빈곤을 대물림하는 현재진행형인 이 문제의 해결은 '완전 폐지'의 선언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는 '단기적' 폐지여야만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인 '장애등급제'도 폐지에 대한 계획과 이후 방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국정과제를 통해 '개인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판정체계로 단계적 개선'이라고 제시하였기에,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장애등급제 개편(안)'에 대한 3차 시범사업이 그대로 진행 중이기에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폐지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 목표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목표와 함께 이후의 방향 및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밥이 민주주의"라고 선언했던 문재인대통령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에 대해 천명(闡明)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라는 천명(天命)[4]이자 촛불의 명령입니다. 광화문농성 5년,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던 마음으로 보냈던 그 5년의 결실을 맺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5주년 투쟁을 기점으로 한 2017년 하반기, 이번에는 반드시 두 제도를 완전 폐지시키겠다는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함께 천명(闡明)합시다.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3 의지나 각오 따위를 드러내어 밝힘

4 하늘의 명령

VOICEYE KOR voiceye.com

두들러(Doodler) 활동기

김필순

사용한 적 없는 새 낙서판.
이 판으로 낙서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박경석은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선언은 언론에 엄청난 관심을 받은 우리의 첫 낙서투쟁이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건물의 대리석과 유리창에 쓴 이 낙서는 이제 이름도 쓰기 싫은 박근혜정부의 사회보장제도 후퇴를 규탄하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선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장애등급제와 죽고 싶지도,
부양의무제로 죽고 싶지도,
시설에 갇혀 살고 싶지 않기에
낙서를 하고 투쟁합니다.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2,717,000원을 청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복지현실을 보여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한국의 복지현실과 광화문 지하역사에서 1800일 넘게 외치고 있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3대 적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세상에 알리는 낙서행동(Doodle Action)은 우리의 2017년 중요한 투쟁전술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낙서는 멋졌고 그날 우리가 한 말들은 가슴을 꾹꾹 누르는 말들이었습니다. '나, 추경진은 하찮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나, 김명학은 장애와 가난을 더 이상 증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냥 한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장애등급제로 죽고 싶지도, 부양의무제로 죽고 싶지도, 시설에 갇혀 살고 싶지 않기에 낙서를 하고 투쟁합니다.

낙서행동(Doodle Action) Tip

하나 락카 스프레이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준비

두울 락카 양을 많이 쓰는 것은 금물, 슬슬- 색이 나올 정도로 가볍게

세엣 경찰 채증에서 나를 보호하는 모자 준비

네엣 락카 매니큐어가 부담스럽다면 장갑 준비(약한 매니큐어라 샤워 한 번이면 쓱- 지워져용)

다섯 혼자보다 같이 낙서하자고 하면 상대가 아주 신나함 ^^

사회보장위원회 낙서 후 우리는 '3대 적폐 폐지하길'을 걸었고, 첫 번째 순례길인 '부양의무제 폐지하길'에서 우리가 잘하는 광화문사거리를 점거하고, 횡단보도 위에 붉은색의 3대 적폐를 선명히 남겼습니다. 이 낙서는 아직까지 광화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숨은그림찾기처럼 광화문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찾아보는 것도 참 즐거워요.^^ 참 락카로 가방을 가득 채우면 무척 무겁습니다.ㅜ 가방에는 빨강·노랑·흰색 3종 세트만 챙기셔야 합니다.

저는 '제13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 드디어 낙서하는 사람, 두들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락카를 뿌렸던지 나중에도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세 번째 낙서투쟁에서 투쟁전술에 어울리는 우리는 무기(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3대 적폐 폐지 '글자판'을 만들었는데 글자판 위에 쓱쓱- 광화문사거리는 순식간에 낙서로 뒤덮어버렸습니다.ㅎㅎ 그런데 이 무기의 치명적 단점은 투쟁 하루 동안 신나게 뿌리고 나면 글자판이 너덜너덜 해지고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 게다가 글자를 파는 작업도 손가락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고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재활용이 가능한 새 무기를 개발했답니다.^^ 고장샘이 락카에 녹아버리지 않는 '아크릴'로 손잡이도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 편한 글자판을 만들자 제안했지요. 우리의 새 무기는 쌔끈하니 아름다웠어요.ㅎㅎ 하지만 아크릴 글자판은 종이판처럼 땅바닥이랑 척-하고 달라붙지 않아 락카가 번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 사용해도 글자판이 망가지지 않아 좋았죠. 무기 개발에 관심 많은 노란들판 식구의 조언을 받아 이번에는 무려 '철판'으로 기존의 크기보다 훨씬 큰 글자판을 만들었답니다. 이건 정말 멋졌어요. 글씨도 크고, 글씨도 안 퍼지고, 거기다 글자판끼리 달라붙지 않아 보관도 용이한 장점까지! (야호야호!)

VOICEYE
voiceye.com

글자판, 낙서판을 가지고 많은 곳에 낙서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날 1000명의 대오가 광화문사거리를 막고 그 안에서 신나게 낙서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와 낙서를 하고,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연대하는 동지들과 함께 낙서를 하고, 저 높은 곳에서 단식농성 하는 동지들을 응원하는 낙서도 했습니다. 광화문사거리 광고탑에서 단식농성 하는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찍은 멋진 사진을 보내줬어요. 위에서 찍는 많은 사진들이 멋진 거 같아요.^^ 420 노숙투쟁 뒤 8킬로미터가 넘는 행진을 하고 마포대교에서 대구시립희망원 희생자 영정을 안고 '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낙서하고, 세계노동절에는 이화사거리를 시작으로 종로1가에서 종로5가까지 곳곳에 낙서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청와대 앞에서도 낙서를 했습니다. (대박이죠!) 얼마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서 인권위의 인권침해로 사망한 '우동민 열사의 죽음을 사죄하라!' 강한 요구도 전달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도로점거를 잘합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은 물론 토론회도 잘합니다. 우리는 경찰청도 인정할 정도로 집회조직도 잘합니다. 우리는 연대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낙서도 잘합니다.

우리는 18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농성장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단단할 수 있는 힘은 투쟁을 잘하고 투쟁을 열심히 하는 것뿐 아니라 투쟁의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2017년 상반기 우리의 투쟁을 즐겁게 해준 낙서, Doodle 고마워요-*

그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

홍은전

노들장애인야학 전 상근활동가.
사회생활 대부분의 시기를
노들야학 교사로 살아서,
노들야학을 빼면 자기소개하기가
매우 난감한 사람.
현재는 인권기록활동네트워크
'소리' 멤버로,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요.
좋은 이야기 있으면 소개시켜 줍시다.

"그날 박진영 씨가 종이에 뭔가를 써와서는 세 부를 복사해 달라고 하더래요. 복사해주니까 그걸 하나하나 봉투에 넣더니 시청, 청와대, 경찰서에 보내 달라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칼로 자기 심장을 찔렀대요.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에 돌아가셨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심장을 너무 깊게 찔러서. 주민센터 담당자 말이, 두 달 동안 정말 '매일' 찾아왔대요. 어릴 때 발병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장애등급 하락됐다고 갑자기 자기를 '근로능력자'라고 하면, 당장 어딜 가서 돈을 버느냐고. 괴팍한 장애인이었대요. 만날 와서 따지고 화내는. 그러니 공무원들은 짜증나고 싫었겠죠.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이것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형숙의 말. 박진영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장에 들어온 네 번째 영정의 주인공이다. 나는 박진영을 이토록 피가 돌고 생생한 표정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다. 이형숙이 말했다. "그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박진영의 유서를 핸드폰에 넣고 다녔다. "나는 비장애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장애인들은 구질구질하니까." 그랬던 그녀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출근길 도로를 점거하고 으리으리한 국제대회장에 난입해 구호를 외치다 사지를 들려 끌려가는 '괴팍하고 구질구질한' 장애인이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벌금 탄압에 항의하는 노역투쟁을 벌일 참이었다.

휠체어도 압수된 채 편의시설이라곤 없는 감방에 던져진 장애인이 그저 '냄새나는 존재'로 전락하는 데에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녀는 2년 전에도 노역을 살았다. '그 힘든 걸 왜 또 합니까?' 내가 묻자,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노역이 얼마나 고역인지 잘 아는 얼굴,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오래전 한 장애여성에게 물었던 적이 있다. '당신은 왜 싸웁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싸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가 저리도록 처절하게 알지.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의 곁을 떠날 수가 없어.'

그땐 몰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두 문장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떠났다. '안다는 것'과 '감당한다는 것' 사이엔 강이 하나 있는데, 알면 알수록 감당하기 힘든 것이 그 강의 속성인지라, 그 말은 그저 그 사이 어디쯤에서 부단히 헤엄치고 있는 사람만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신영복은 '아름다움'이 '앎'에서 나온 말이며, '안다'는 건 대상을 '껴안는' 일이라 했다. 언제든 자기 심장을 찌르려고 칼을 쥔 사람을 껴안는 일,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고.

세상엔 자신의 유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싸움은 그들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싸움의 지속은 타인의 유서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김소연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사람의 울음을 이해한 자는 그 울음에 순교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사람의 구질구질함을 이해한 자는 그 구질구질함에 순교한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누리던 그마저의 권리도 내려놓고 창살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아름답다. 7월 17일, 이형숙·박옥순·이경호 세 사람이 국가의 벌금 탄압에 저항해 노역투쟁에 들어갔다. 농성 기간 5년 동안 그들과 그 동료들에게 지워진 벌금은 5천만원이 넘었다. 연대와 후원을 바란다.

국민은행 477402-01-195204 박경석.

*이 글은 〈한겨레〉에도 실렸습니다.

노들아 안녕

알록달록,
다시 만나는 노들

이현아

안녕하세요. 노들야학 교사로 자원하게 된 이현아입니다. 제가 정말 어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자기소개인데요. 이렇게나 큰 과제를 주시다니(...) 글을 쓸 때는 내 글을 읽어 줄 독자를 생각하며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아는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며 민망하기도 하고, 노들을 알고 좋아한 지 십 년이 넘게 흘러서야 "노들아 안녕"에 글을 쓰게 되어 새삼 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운동권 선배들이 주축이 된(?) 장애인권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장애인운동을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노들야학이라는 공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간마련을 위한 천막야학 당시까지도 매체로만 접하다가 졸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늦바람이 들어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석암비대위 탈시설학교 문해교육에 보조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대학로라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알록달록 페인트칠을 한 예쁜 공간이 마음에 든 이유도 컸습니다.) 시설 장애인들과 직접 소통해본 경험이 처음이어서 편견과 두려움이 컸지만, 생각보다 정말 즐거운 사람들과의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십여 년이 지났지만, 며칠 전에 참관했던 수업에서 저를 기억해 주셨던 동림 님 정말 감사합니다.ㅜ_ㅜ)

하지만 동시에 그 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함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분노의 감정이 복잡하게 엉켰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집에서 혹은 시설에 갇혀 야학조차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나는 그야말로 "나"의 문제밖에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노들야학은 "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게 해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너"의 문제를 있게 한 상황은 나의 상황과 너무도 닮아있는 것이었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칫 사고라도 생기면 전적으로 부모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시다시피 하고서야 일반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고, 그렇게 편의시설이 전무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부모님의 전적인 헌신으로써 마칠 수 있었던 나의 상황은 나의 장애를 온전히 내 가족의 책임으로 돌렸던 사회 구조의 산물이었고, 중증장애인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집이나 시설에서 사육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장애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어도 괜찮다는 사회적 폭력의 결과였습니다.

처음의 알록달록 예쁘던 공간이 지금은 세월의 흔적이 확연히 느껴지기는 하지만, 더욱 고민을 확장해 나가고 익숙한 많은 얼굴들의 열정을 변함없이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에서 함께하며, 변함없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수업은커녕 개인 과외 경험도 한 번도 없는 터라 교사라는 역할이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삶의 맥락을 가진 학생, 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많은 기대가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런저런 고민만 많은 소심한 성격이라 앞으로도 많은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야학의 명성(!)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들아 안녕

나는 센터판
활동가입니다

이은애

안녕하세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의 신입 활동가이자 노들의 신입활동가인 이은애입니다.^^ 저는 센터판에 3월 6일에 입사하였는데 벌써 계절이 바뀌고 함께한 지 5개월이 되어가네요~!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6년간 봉사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교를 사회복지학으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나는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을까를 고민하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분야에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것이 장애인 분야였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장애인 분야는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령이 다양하다는 점과 15가지의 장애유형은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충분히 흥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로 2년 동안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활동지원 사업 코디를 하면서 많은 이용자와 활동지원인들을 만나 상담하였고 이 때문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진정한 자립생활센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립생활센터가 복지관과 다른 점은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인 저는 복지관과 다른 차별성을 두고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당사자의 입장과 시선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들에서 항상 발전하는 이은애 활동가가 되겠습니다!!!^^

VOICEYE
voiceye.com

노들아 안녕

왁자지껄 데굴데굴 우장창창 노들

김지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다섯 학기 동안 노들야학 청솔1반 학생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고, 투쟁했던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2015년 겨울, 처음 노들야학에 와서 신임교사 소개서를 쓸 때보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과 같은 제목의 '노들아 안녕(Hello)'을 쓸 때보다, 노들야학 교사로 크고 작은 여러 글을 썼을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곰곰곰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나는 노들과 진한 연애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희노애락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외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노들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 주신 노들의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살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색깔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왁자지껄 데굴데굴 우장창창 굴러가는 노들을 응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멕시코 치아파스의 어느 원주민 여성-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말로 글로 풀어낼 수 있을지 많이 배우고 돌아오겠습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노들, 차갑게 혹은 뜨겁게 어디서든 다시 만나요~!^^

VOICEYE
voiceye.com

노들아 안녕

노란들판에 날리는 편지

이승헌

오래오래 전 에바다 투쟁을 계기로 노들 사람들과 인연을 맺었다.
(사)노들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최근 인강원 보호작업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런 저런 고민을 하며 살고 있다.

노들을 떠나온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밀려있던 일들을 허겁지겁 마무리 하고 떠나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8월이 되었네요. 무더운 여름, 노들의 모든 상근 활동가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노들은 지금쯤 야학 방학이 끝나고 저녁밥 먹는 시간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하겠네요.

저는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곳 인강원 보호작업장으로 옮기면서 가장 좋은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출퇴근하는 거리가 짧아졌다는 점일 거예요. 노들에서 일할 때는 두 시간 가까이 걸려 출퇴근을 했었는데, 여기는 의정부에 붙어있는 곳이다 보니 차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네요. 그만큼 여유 시간이 만들어지니 마음에도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문제투성이의 작업장을 어떻게 바꿔 놓아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정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가장 먼저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과 형태부터 바꿔놨고, 요즘은 회계 시스템을 기존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하고 있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지요. 그러고 보니 노들에서도 회계 입력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했었는데,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필요한 일이니 해야겠지요. 회계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일한다는 것은 종사자들이 눈감고 일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눈을 뜨게 만들어야죠. 그 밖에도 여러 시도들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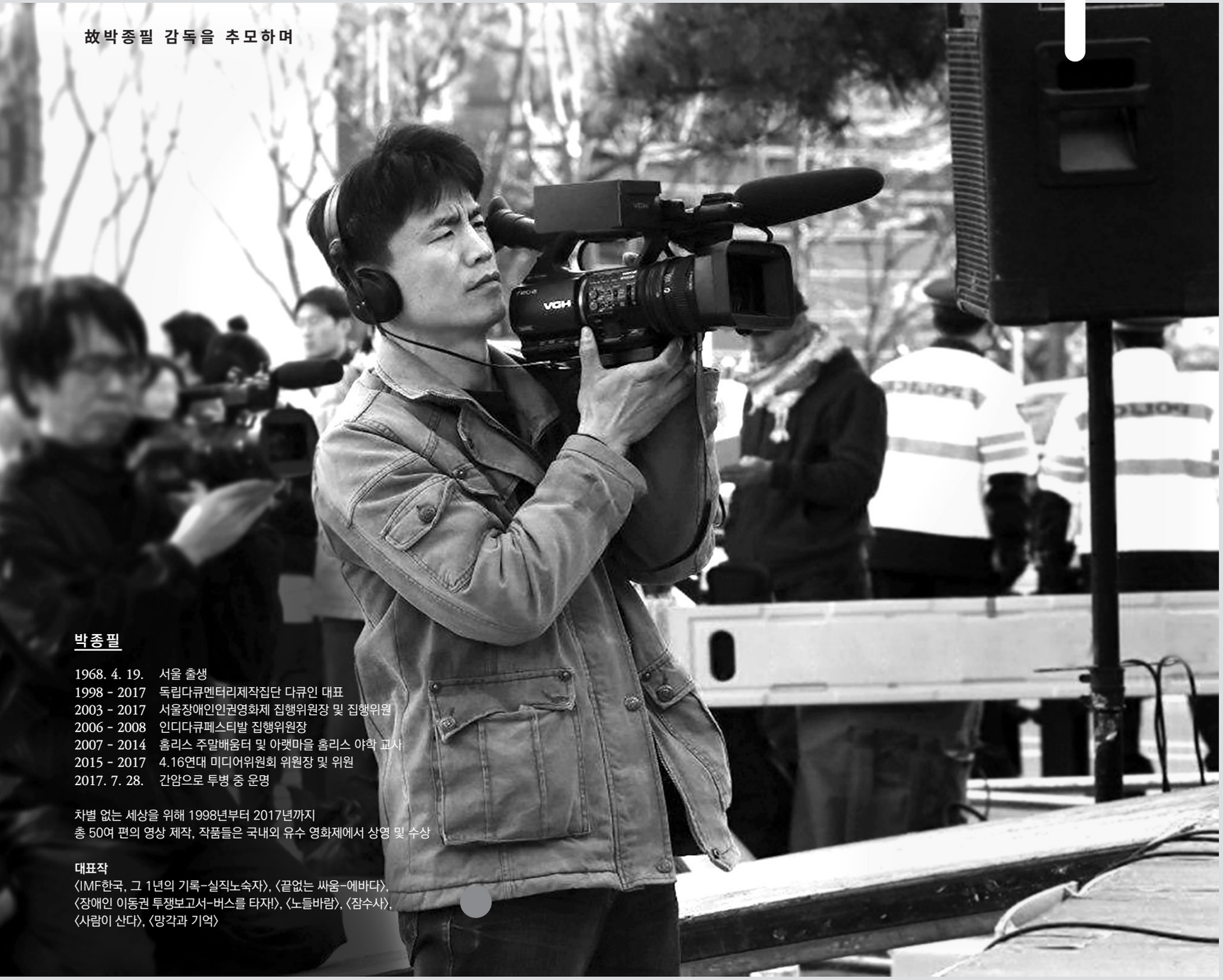
한 가지 가슴 아픈 일은,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작업장에서 일하던 발달장애인 한 분이 가족들에 의해 거주시설에 입소한 일입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탈시설이라 하면 거주시설의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나오게 하는 것만을 고민했었는데, 사실은 보호작업장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 역시 예비 시설 입소자들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든 가족들의 형편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탈시설과 자립을 위한 노들의 여러 활동들이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진답니다.

노들에서 보냈던 지난 2년 2개월의 시간들은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노들에 오지 않고 에바다에 계속 있었더라면 알지 못했을 중요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탈시설에 관한 경험과 이야기들이 아닐까 생각해요. 미처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오기는 했지만, 공동모금회가 지원했던 '나도 혼자 산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설장애인들의 탈시설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경험이었고, 앞으로 이곳 인강원에서도 이어가야 할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시설과 작업장과 인강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애 주기의 대부분을 보내는 발달장애인들이 있는 인강재단과, 탈시설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대표적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노들이 연결되어 무언가 도모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들은 야학의 낮 수업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범위를 더 넓혀서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 인강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 인강재단의 임직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장애인권, 탈시설, 자립과 같은 문제들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실천을 해볼 수 있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띄우는 오늘은 무척이나 덥네요. 불과 며칠 전에는 지난 십수 년간 장애인 동지들 곁을 지켜주고, 우리 장애운동에 빛을 비추어 세상으로 하여금 장애인들의 절규를 보게 해주었던 종필이 형이 우리 곁을 떠나는 슬픈 일도 있었지요. 그래서 어쩌면 더위에 슬픔에 더 지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노들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농부들이 가뭄에 애타고, 장마에 지치고, 태풍에 부대끼면서도 가을 노란들판을 꿈꾸며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노들의 농부들도 이 더운 여름, 이 지독한 슬픔을 다 이겨내고 풍요로운 공동체 노란들판을 기필코 일궈낼 것이라 믿습니다. 노들 파이팅!!



故박종필 감독을 추모하며

박종필

1968. 4. 19. 서울 출생
1998 - 2017 독립다큐멘터리제작집단 다큐인 대표
2003 - 2017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2006 - 2008 인디다큐페스티발 집행위원장
2007 - 2014 홈리스 주말배움터 및 아랫마을 홈리스 야학 교사
2015 - 2017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2017. 7. 28. 간암으로 투병 중 운명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총 50여 편의 영상 제작, 작품들은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서 상영 및 수상

대표작
〈IMF한국, 그 1년의 기록-실직노숙자〉, 〈끝없는 싸움-에바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버스를 타자!〉, 〈노들바람〉, 〈잠수사〉,
〈사람이 산다〉, 〈망각과 기억〉

그의 카메라는
가볍게 스치는 영상이 아니라,

얼굴 여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주었습니다.

故박종필 감독을 추모하며

나의 금관예수 박종필 감독

박경석 추도사

박.종.필. 감독은
나에게 금관예수입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거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쟁과 효율'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권력과 이 사회에서
나는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늘과 벌판은 얼어붙었고,
나의 태양은 빛을 잃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가야하는 거리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 장벽에 갇혀
나는 너무 추웠고, 외로웠고,
어두웠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하철로 내려가,
가는 지하철을 막았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나를 태우지 못하는 버스를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한강대교를 6시간 기었고,
권력과 자본이 불평등하게 점유한
공간마다 점거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나와 같이 얼굴 여윈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습니다.

너무 곤욕스럽고 외로워서
외쳤습니다.
'오, 주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있는 그 외치는 곳에
주님은 없었고,
박종필 감독의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박종필의 카메라는 가볍게 스치는
영상이 아니라,
얼굴 여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되어주었습니다.

절규가 되어주었고,
웃음이 되어주었고,
이야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음으로,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박종필 감독의 카메라는
내가 찾아 헤매는 천국이
죽음 저편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차별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인운동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공간에서,
세월호의 '망각과 기억' 속에서,

이 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하다는 존재임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박종필의 카메라이고,
다큐였습니다.

박종필 감독은 나에게 금관예수입니다.

내 힘이 너무 미약해서 민망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은
박종필 감독이
차별에 저항하는 사람들 모두의
금관예수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종필은 마지막 순간에도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장애인운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를 알리기 위해 형의 삶에 대한 영
상을 작업했어야 했는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다큐는 이렇게 하는 거야'를
알리기 위해 박종필의 삶을 찾아
기록하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꼭 박종필의 다큐를 기억하고 남
기겠습니다.

박종필 감독,
너무 고마웠어요.

종필 감독,
그거 알고 있지요.

당신이 만든 '장애인이동권보고
서-버스를 타자'는
장애인운동을 알리는
가슴 뛰게 만드는 교과서라는 것
을요.

나보다 먼저 가서
너무 야속하고 아프지만,
편히 잘 쉬어요.
나의 금관예수.

故박종필 감독을 추모하며

당신의 삶은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류미례 추도사

“박종필 감독은 장애인운동의 눈물과 한숨, 분노와 슬픔, 기쁨과 희망을 아는 유일한 감독이다. 그는 영화를 만들며 성장해왔고 카메라는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사한다. 그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세계는 이 땅 장애인권운동의 역사, 바로 그것이다.”

2009년에 박종필 감독의 장애인권 3부작 DVD 자켓에 제가 썼던 글입니다. 소개글을 부탁했던 박종필 감독은 제가 쓴 글을 보더니 “내가 그런 사람이냐?”하며 씩 웃었습니다. 얼마 후 DVD가 출시됐는데 표지 인쇄가 잘못돼서 제 이름 한 줄만 빠져버렸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도 미안해하더니 박종필 감독은 결국 제 이름만 다시 인쇄를 해서 일일이 딱지를 붙여줬습니다.

박종필 감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장 하나라도 수고한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배라서 저는 박종필 감독이 부르면 어디라도 갔습니다. 박종필 감독을 따라 장애인미디어교육을 처음 시작했고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같이 만들었고 홈리스행동에서 미디어교육을 했습니다. 종필 선배가 부르는 곳에 가면 늘 제가 바치는 수고보다 제가 얻는 양분이 더 많았습니다. 박종필 감독은 평생 그렇게 저의 길잡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회원으로서 세월호 1주기 추모행사를 촬영하던 저는, 지나가던 박종필 감독을 발견하고 인터뷰를 해야하니 잠깐만 촬영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늘 박종필 감독이 저를 이끌었는데 그 날 처음으로 제가 박종필 감독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활동을 시작한 후 박종필 감독은 참 많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김관홍 잠수사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함께 있었고 그래서 펑펑 울면서 추모영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깊은 슬픔이 박종필 감독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박종필 감독이 간암으로 투병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2015년 4월에 우리가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박종필 감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슬픔과 후회와 미안함에 힘들어하다가 장례식장에서 송윤혁 감독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종필 감독의 다이어리에 이런 글이 씌어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를 만났다. 세월호는 나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서 늘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박종필 감독의 마지막 선택지는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세월호 가족들 옆이었습니다. 암 때문에 조금씩 말라가면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고, 암 진단을 받고 카메라를 내려놓은 후에는 암과 싸웠습니다. 투병 중이던 박종필 감독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박감독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말할 테니 너는 말하지 마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은 말하지 말라는 것뿐이었는데 그 말을 평생 나를 이끈 선배의 유언으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지성아버님께 남긴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력이 다한 몸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힘겹게 뱉으며 박종필 감독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지? 우리는 감동을 주어야하는 사람이야”

종필 선배, 당신의 삶은 제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성아버님께 남긴 말을 제게 주는 유언으로 삼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크지만 당신이 남긴 말과 당신이 남긴 영화로 이 슬픔을 견뎌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못 다한 일을 이어갈 테니
편히 잠드세요.

형님 한 말씀

「사랑하는 박종필 동생에게」 김명학. - 노들야학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필동생 잘 지내고 있지? 동생이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서 많이 슬퍼. 동생이 떠나다는 게 실감이 안나. 아직도 동생이 우리 곁에 있을 거만 같아. 언제나 만나면 동생의 그 환한 미소로 답하는 동생의 모습. 집회 현장에서 카메라를 손에 들고 열심히 현장의 모습들을 카메라로 담는 그 든든한 동생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 그 만큼 동생을 떠나 보내는 마음은 많이 아파. 종필동생이 벌써 보고 싶다. 많이 쓰더 저 하늘나라에서. 장애도 가난도 질병도 없는 곳에서 잘 지내. 그곳에 가서 그동안 보고 싶은 분들도 만나보고 있겠지. 그런 소중한 만남들이 있기에 동생이 좀 덜 외로움과 허전 함이 있을 거래. 종필동생이 근 20년간 변함없이 해온 기록들의 작업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 였어. 동생은 소중하고 값진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남기고 갔어. 동생이 더 많은 기록들의 작업들이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은 우리 곁에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꾸 슬프다. 이젠 종필 동생이 우리 곁에 없으니. 우리들이 해야겠지. 종필동생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거리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여의도 국회에서. 목포 신항 세월호에서 우리들은 오래 오래 종필 동생을 기억 할 거야. 이젠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 놓고 편안 하게 잘 지내으면 좋겠다. 특히 노들야학과 함께 해 주셨서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 해. 우리들이 좋아하는 종필동생은 멀리 멀리 갔지만 동생은 언제나 우리들 마음 속에.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있어. 당연히 집회 현장에서도 우린 늘 함께 투쟁 하고 있다고 생각해. 종필동생 그래서 우리 장애등급제도, 복양의무 제도. 장애인 시설 정책도 폐지 시키자. 꼬옥... 그래서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들도 인간 답게 살자. 그동안 빼앗긴 각자들의 인권들을 되찾고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자. 가난한 사람도. 장애인들도 이젠 더 이상 죽고 싶지 않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종필 동생 우리 함께 꼭 투쟁하여 승리 하자. 잘 알았지. 우리 함께 꼭 그렇게 하 자.
종필 동생 그럼 잘 지내 안녕히 - 동생을 사랑하는 명학형이.

VOICEYE
voiceye.com

와빠? 노들! 7월의 노들 활동가 소통모임

서기현

어머니의 태몽에서 백사로 분해 치맛속(?)으로
들어가 태어나서 그런지 입만 살아있고 팔다리는 못 씀.
역시나 뱀처럼 음흉하고 똑똑하여 이간질을 잘함.
그래서 쏠로 ㅠㅠ 천운으로 센터판 소장으로 들어와
아직까지는 버티고는 있지만 글쎄... ㅋㅋㅋ

올해부터 노들 식구들은 2달에 한 번씩 소통모임을 합니다. 6개의 단위(사단법인 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의 활동가 50여 명이 모여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유용한 강의도 들으며 즐거운 점심식사도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노들야학에서 준비한 내용과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는 활동가들이 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지를 했던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노들의 주요 결정은 누가 하나요?"라는 질문에 누군가 1명이 호기롭게 "박경석 교장샘"이라는 답변을 써놓은 결과를 보고 대다수는 웃어 넘겼지만 몇몇은 격렬하게 공감하는 바람에 교장샘은 엄청나게 억울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순서에서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께서 일본의 장애인 공동체인 '와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와빠는 40년 전부터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여러 사업체를 만들어 경제활동을 하는 곳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 비장

애인 구분 없이 일을 배분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빵공장에서 일하는 한 발달장애인은 빵 굽는 틀을 닦는 역할만 종일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누군가 닦달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도 된다고 하니, 빵공장이 돌아갈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바로 의문이 풀렸어요. 빵공장 공장장은 비장애인인데 거의 매일 점심도 못 먹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답니다. 그 내용을 듣자마자 많은 비장애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곤 노들도 그런 분위기로 교장샘이 몰고 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역시나 교장샘은 억울해 하셨어요. 진실은 교장샘만 아시겠죠.

그렇게 약간(?)은 불공평하게 일을 해도 또 하나의 원칙은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월급을 받는답니다. 장애인이 최저시급도 못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발상의 전환이겠죠. 능력이나 효율성이 아닌 노동 그 자체의 무겁고 가벼움을 따지지 않는...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러면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장애인, 비장애인이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면 돈이 안 벌릴 텐데요 라고 걱정을 함께 얘기했지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와빠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업체가 있다. 그 중에는 돈 벌리는 곳이 있고 적자인 곳도 있다. 일단 중앙사무국에서 그런 상황을 파악한 후, 수익금을 모아서 적자인 사업체에 돈을 채워준다. 물론 오랜 기간 적자인 곳은 부득이하게 폐쇄도 한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가의 경우 나라에서 지원 받는 돈과 급여 기준액과의 차액만을 주기 때문에 생각만큼 돈이 들지 않는다."

콜럼부스의 달걀처럼 알고 나니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쉬운 해결책이었어요. 일본의 복지제도 아래에서 가능하지 우리나라에서는 힘이 들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급비나 장애연금 받는 분들에게 차액만 보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 테니까요.

이번 노들 소통모임은 꽤 유용했어요. 활동가들이 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앞으로 노들이라는 공동체가 - 와빠의 사례를 참고하여 - 어떻게 가야하는지 제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늘 투쟁의 현장에서만 노들 식구들을 보다가 비교적 시원하고 덜 번잡스러운 곳에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좋았답니다.

다음에는 노들야학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센터판- 제발... 판센터 아니랍니다.-이 노들 소통모임을 준비하니 기대해주세요~~

그때 봐요~~

voiceye.com VOICEYE

평화로운 밥상을 위하여 급식항쟁

김유미

야학에서 하루 두 끼 밥을 먹는다.
급식에 고기반찬이 나오면 난감해한다.
뭘 먹고 뭘 안 먹든,
먹는 일은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해 호프 준비팀장을 맡아서 많이 헤맸다.

노들엔 휠체어와 활동보조인이 없이 일상에서 일상적인 일들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밥이란 '그림의 떡'이었고, 가난한 이들에게 한 끼 밥이란 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이들에게 밥이란 '혼자만 잘 먹으면 무슨 재민겨' 죄책감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서로'뿐인 우리는 이 상황을 함께 변화시켜보기로 했습니다. 2014년 4월 7일 학생과 교사가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한 편에 큰 냉장고를 들이고, 싱크대와 조리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식판을 사고, 숟가락을 사고, 그렇게 주방을 갖추는 데만도 이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안정적으로 밥 해주실 분도 필요하고, 매일 먹을 식재료도 필요합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언제까지 가능할까 불안한 밥상이지만 일단 함께 먹을 수 있는 밥상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조금 좋습니다.

지원금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급식이라 일단 밥값은 한 끼 3,000원입니다. 노들도 '친환경 무상급식'하면 좋겠는데, 그런 날이 올까요? 벌써부터 밥값이 부담스러워 식당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마음 편히 함께 밥 먹고 너도 나도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의 밥상을 함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2014년 노들의 이야기다. 그때도 급식비를 구해보려고 이런 글을 썼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건 밥값. 2017년 급식 4년차인 지금 노들의 밥값은 사정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한동안 급식 교실 앞에서 어슬렁거리던 학생들이 눈에 밟혀 학생 밥값은 3000원에서 1000원이 되었다가 작년부터 0원이다. 몇 년 만에 장족의 발전을 한 기분이다.

현실은 기분과 달랐다. 야학 통장은 자꾸만 빵꾸가 났다. 곳간은 돌아보면 비어 있다. 급식을 시작한 뒤로, 야학은 매년 '급식비 마련' 후원주점을 연다. 우리 급식의 의미를 알리고, 계속 돈을 벌어내고, 밥상을 유지시키는 것이 야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생각해보면, 하루에 백 명 가까이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일이다. 요즘 야학 상근자들은 집회 마치고 허겁지겁 돌아와 배식을 하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부리나케 식판을 닦는다.

노들은 올해도 급식비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을 열었다. 촛불 대선을 고려해 급식 날짜를 조금 미뤄, 6월 10일로 잡았다. 올해는 610 민주항쟁 30년이 되는 해. 라임을 맞춰 우리 호프 이름은 급식항쟁이 되었다. 노들야학의 중증장애인 학생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이 노력이 민주주의의 과정이자 과제라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밥이 민주주의다" 했다. 민주주의 투쟁.

6월 10일 급식 한마당은 성황을 이뤘다. 이번에 돈 못 벌면 학생들 밥 굶는다는 단순명료한 생각으로 후원티켓을 돌렸다. 야학뿐만 아니라 전체 노들 단위가 움직여 조직적으로! 표를 팔았다. 야학 1층 주차장에서 몇 년째 호프를 열다보니, 일도 알아서 척척 굴러가는 느낌적 느낌…이 있다. 준비팀장이

어리바리하니, 일꾼들이 알아서 척척…

호프가 열리는 야학 1층은 평소엔 주차장이다. 천장이 좀 낮고 조명이 밝지 않은 편이다. 낮과 밤의 풍경은 차이가 큰데, 밤엔 좀 음침한 느낌도 있다. 예전에 야학 주차장에서 스릴러 영화를 찍기도 했다. … 아… 낮은 한가하고 괜찮음… 아무튼 이런 공간에서 호프를 연다는 것이 웃길 때가 있다. 주차장이라니. 좀 기괴한 주인장이 연 페스티벌 같은 느낌이 있다. 큰 사고 없이 잘 놀다 가 주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당일에 오지 못했어도, 응원해 주시고, 마음 보태주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 덕분에 노들은 올해도 걱정 조금 덜고 밥상 앞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모두 밥 잘 챙겨먹고 힘내서 투쟁합시다!

KOR VOICEYE
voiceye.com

재 밌 는 일 몇 가 지

주차장이 비좁아 테이블 놓을 곳이 필요했던 우리는, 야학 바로 앞 차도를 '차 없는 거리'로 우리 맘대로 선포하고 테이블을 깔았다. 누가 뭐라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으나, 아무도 불만 없네.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공연을 한 평화의나무합창단이 새하얀 티셔츠 그대로 급식항쟁 호프에 왔다. 우리의 주차장에서 선물처럼, 노래도 불러주셨다. 이들 외에도 민주항쟁 행사에 갔다가 급식항쟁 호프에 와서 뒤풀이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호프 분위기에 맞춰 '학문의 포차'를 열었다. 맨날 책 보고, 글 쓰고, 번역하는 이들이 살신성인 느낌으로 책을 팔았다. 자신이 쓴 책을 '무려 시가'에 내놓고, 민아영 선생의 비(마이너스)급 디자인 실력에 자신들 얼굴을 내맡기는 대범함을 선보였다. 요상한 웹홍보물은 궁리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야학 건물 3층이 회의실 대여 업체이고, 5층이 고시텔이라 엠프를 빵빵하게 틀 수 없었다. 공연 행사를 1시간만 딱 하기로 약속하고, 엠프도 쓰지 않기로 했다. 엠프 안 쓰는 대신 하자작업장학교 바투가타 팀이 와서 수루두를 심장 울리게 둥둥 울려주고, 쿨레칸은 젬베로 사람들을 봉인 해제시켰다. 다들 어찌나 춤을 춰대는지…

안주가 바닥을 향해 가던 시간.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라고 밝힌 분이 여기가 뭔가 싶어서 들어와 봤다며 혼술을 하다 가셨다. 종로구 대표 축제가 되는 건 이제 정말 시간 문제인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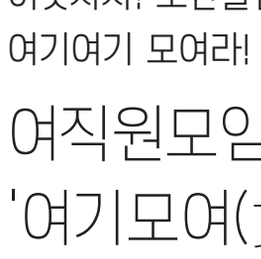
호프 준비 회의를 하는데, 센터판 권 모 사무국장이 노들 멤버쉽 티가 갖고 싶다고 했다. 행사 이름 같은 거 쓰지 말고, 노들 활동가들이 입을 티를 맞추면 좋겠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노란들판에 디자인을 요청하고, 티셔츠를 맞췄다. 가슴팍에 이렇게 썼다. '노란들판의 농부들'.

여랏차차! 노란들판 여직원
여기여기 모여라!

여직원모임 '여기모여(女氣모여)'

고수진

생각이 큰 디자인을 꿈꾸며
오늘도 작은 손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디자이너



노란들판이 있는
석관동 맛집에서 이뤄진
'여기모여' 분기별 모임

2017년 노란들판은 성북구 세계 여성의 날 유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여성의 적극적인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올해로 10년 장기근속자가 된 조수안 팀장을 필두로 6개월 차 막내 진실로 디자이너까지. 노란들판 구성원의 절반은 여성이다. 세계 여성의 날 유공 기업 선정을 계기로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하며 노란들판 여직원 모임이 시작되었다. 여성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함께 보고 인권 및 성평등 교육을 통해 여성 스스로 여성 노동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기로 한 것이다. 상반기 여직원 모임의 활동 키워드는 '교육', '영화', '이름'이었다.

4월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박지아 님의 성평등 교육을 시작으로 6월 4대에 걸친 모계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았다. 성평등에 대한 노란들판 직원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아래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여직원 모임의 이름을 공모하였다. 여기모여(女氣모여), 여랏차차, 여보슈, 여봐라, 유고위고, 여성해방, 언니쓰 등 출품자의 개성이 담긴 이름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최종 투표에서 여기모여(女氣모여)와 여랏차차의 접전이 펼쳐졌다. 치열한 투표 끝에 여성의 기운이 모인다는 뜻의 여기모여(女氣모여)가 노란들판 여직원 모임의 이름으로 선정되었다. 간소한 차이로 아쉽게 채택되지 못한 여랏차차는 여성의 힘찬 모습을 표현한 점을 높이 사 구호로 지정하였다.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노란들판 여직원 모임, '여기모여'의 로고 제작 및 '여기모여' 4행시 이벤트가 있었다. 무릎이 절로 쳐지는 기발함과 이 여름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수상작을 소개한다.

대상.

여 태껏 찾지 못했던
기 가 막힌 상상이 펼쳐지는
모 임을 원하신다면
여 기모여!로 오세요.

아차상.

여 름이 오니
기 력이 없네
모 밀국수 먹고
여 행가야지.

아차상.

여 러분 조금만
기 다리면 여름휴가에옷!
모 두 총전합시다.
여 름이 온다.

노란들판 여직원 모임 '여기모여'는 앞으로 3, 6, 9, 12월 분기별 모임과 영화모임,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갈 예정이다. 벌써부터 9월 노란들판 여직원 모임, 여기모여가 기대된다.

'공생공장'을 말해줘~

해니

노란들판 안에서의 닉네임은 '햇'입니다.
트위터의 자기소개 문구가
'움직이고 싶은, 고운 삽질하고 싶은 사람'인데,
느리지만 계속 스스로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바꿔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낯선 도시로의 여행, 낮술, 맥주를 좋아합니다.

공생공장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함께 만들어가는 곳

: 공생공장은 노란들판의 친환경 현수막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공장이 올해 11살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앞으로의 10년을 먹고 살기 위해 고민하자는 거창한(?) 의도로 몇몇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신사업을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여야 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DB나눔재단의 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타이벡 현수막 개발'사업이 선정되어, 타이벡 원단을 비롯한 다양한 원단을 출력할 수 있는 HP라텍스 출력기를 구입하고 타이벡 현수막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몇몇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공장에서 타이벡 현수막을 사용해보라고 적극 권장하여 강제로 구입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수막을 타이벡으로 출력하면 마치 한지(종이)에 출력한 것처럼 은은한 느낌이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튼튼한 장점이 있습니다.

올해 4월, 통인동 커피공방에서 후원하여 제작한 세월호 광장 캠프 현수막을 타이벡으로 제작했었어요. 노란들판의 디자이너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부에 설치한 현수막이 햇볕에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옅어지는 단점이 있었데, 타이벡은 자외선 차단 기능과 방수성이 있어서 색감이 비교적 오래 가는 장점이 있어요.

타이벡에 대해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미국 듀폰사에서 만든 고밀도의 폴리에틸렌을 원료로 한 섬유로 질기고 가벼우며 방수성, 향균성, 자외선 차단기능을 갖고 있어요. 연소 시 물과 이산화탄소만 남고,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도 가능해요.

타이벡 현수막에는 공장의 주된 사업인 현수막의 폐기 과정에 대한 고민, 환경과 상생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공장은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의뢰한, 후원자들에 감사 선물로 전달할 공생공장 타이벡 파우치를 제작하고 있어요. 공생공장 준비팀(고수, 송반장, 짱, 나햇)이 몇 주간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동대문종합시장과 신설동 가방 부자재 시장에서 재료들을 사오고,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성북구에 있는 마을공동체 '자문자답'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두둥두둥 곧 찾아올, 공생공장 파우치 기대해주세요!

공생공장 업사이클링!

오래 사용하는 현수막, 소중한 행사의 현수막은 타이벡으로 주문해 주세요!

타이벡 현수막은 사용 후에도 재미있는 디자인과 만나 업사이클링 홍보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타이벡을 활용한 시제품들을 개발해서 만드는 중인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은, 파우치, 책&다이어리 커버케이스, 필통, 책갈피, 카드&여권 지갑, 연간 달력 등이 있어요.

공생공장이란 친환경 브랜드를 통해 앞으로 노란들판만의 장점을 담은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같이 하는, 가치있는 디자인이 담겨있는 공생공장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려요! 노란들판의 블로그에서도 공생공장 소식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

KOR VOICEYE
voiceye.com

교단일기

교사, 학생이 함께 배우는 과학수업

허신행

노들야학에서 불수레, 한소리반 학생들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내 인생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 필요성도 못 느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물리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 흔한 화학식도 H_2O밖에는 몰랐다. 그런 내가 과학선생이 되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 한소리반에 너무 오래 있었다는 것, 영어수업을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점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시간표를 고려했을 때 과학 이외의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상하게도 야학 선생님들은 문과 출신들이 많았고, 과학은 전통적인 기피(?) 과목이었다.

2016년 1학기부터 청솔 2반 과학 과목을 맡아 학생분들과 공부하기 시작했다. 수업의 목표는 '나의 자립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모두 아는 것(혹은 안다고 믿는 것)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 였다. 영어를 할 때에도 그랬고, 과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어수업에서 혜화동 동네 간판 읽기, TV광고에 나오는 단어 등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나마 영어는 내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영역이라는 점이라는 데 반해 과학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 전략은 내가 알고 싶고 재미있어 보이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보자였다.

첫 학기 과학수업에서는 듣기만 해도 흥미가 생기는 주제들을 잡았다(물론 나한테만 흥미 있었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으로 학기말 평가회 때 밝혀졌다). 창조론과 진화론, 한의학과 양의학의 갈등, 원자력, 무인자동차, 사회진화론, 핀테크, 특이점 등을 다루었다. 수업은 학생분들도 좋아하시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었다. 학생·교사가 함께 배운다는 것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문제는 준비과정이었다. 관련 개념을 기초적인 것부터 공부해야 해서 수업 준비에 짧을 때는 3~4시간, 많이 걸릴 때는 사나흘도 예사였다. 그중 압권은 작년 2학기 때 진행한 블랙홀이었다. 당시 소재 고갈에 시달렸고 학생분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부탁했다. 비행기가 뜨는 원리와 블랙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셨다. 잠깐 생각에 후자가 쉬울 것 같아 다음 주는 블랙홀이라 말씀드렸다. 큰 실수였다. 만유인력, 탈출 속도, 밀도, 사건의 지평선, 특이점 등등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만도 한참이 걸렸다. 학생분들에게 이 내용을 재가공해서 말씀드리는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아마 지금은 다 까먹으셨을 거다. 나도 까먹었다. 괜찮다. 또 하면 된다. 다음번에 들으실 땐 더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다.

지난 세 학기 과학수업을 돌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주제는 핀테크[1]이다. 핀테크의 개념과 성장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의 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그중에서도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투자가치에 대해서 강조했었다.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려드리고 한 번 시험 삼아 해보시라는 말씀도 드렸었다. 수업 당일 1비트코인은 79만 원 선,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시세는 320만 원이다. 4배... 지식과 행동이 서로 일치해야 하는데 교사라는 자가 그러지 못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역시나 장애와 연관이 깊은 주제들이다. 장애와 관련한 민간요법, 낙태와 장애, 사회진화론, 혈액형 성격이론 등을 다루었다. 민간요법에서는 장애를 '낫게'해주는 민간요법을 보았다. 특히나 정신장애나 간질 등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 많았다. 낙태와 장애에서는 모성보호법을, 사회진화론에서는 우생학을 다루었다.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혈액형 성격이론이다. 아직도 혈액형 별로 성격이 정해져 있다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혈액형 이론의 태생부터 인종주의와 우생학적 관점이 들어있다는 점과 비과학성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나니 확실히 이 이론이 문제가 있고 더 이상 확대·재생산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 같았다.

허신행 선생이 모 영화에서 열연 중인 화면을 캡쳐

우리들은 교육에서 소외받아왔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도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늘 이야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야학 바깥에서 생활하는 비슷한 또래의 비장애인의 수준과 비교해서 야학 학생들의 배움의 수준은 이제 역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떤 50대가 블랙홀, 인공지능, 핀테크를 공부할까? 힘들지만 매일 매일 꾸준하게 야학에 나온 학생분들의 노고의 대가일 것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또 토론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학생도 선생도 함께 말이다.

1 핀테크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위키백과) 우리에게 친숙한 핀테크의 예로는 후원금을 모을 때 쓰는 소셜펀치 등의 크라우드펀딩, 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토스,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류가 있다.

나는 활동보조인입니다

우연히 찾아온 인연 –

윤지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에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민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낮잠 자기와 게임입니다.
싫어하는 것은 더위와 동생의 심부름입니다.
언제나 들고 다니는 물건이 많아서 배낭을 메는데
친구들은 그 가방을 만화에 나오는
도라에몽의 주머니 같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의 자기소개와 같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에서 정소영 선생님의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지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로지원인'이라는 제도조차 몰랐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기에 들어본 적도,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당시 직장이 강원도에 위치한 리조트였기 때문에 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조트를 퇴사하고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중에 잠깐 다른 데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하락으로 그곳마저도 다닐 수 없게 되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리고 여러 군데 지원하고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02 지역번호로 전화가 와서 카드회사의 전화라는 생각에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의 사무국장님이 문자를 넣어주셔서 그제야 통화를 하여 설명을 듣고 센터 판의 정소영 선생님을 소개받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주소도 잘못 알려주셔서 중간에 헤맸지만, 다행히 도착하여 면접을 보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였습니다. 이쪽 계통 일을 접해 본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주위에 없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감도 제대로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광화문광장에서 시위하였을 때는 정말로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시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어도 내가 그곳에 참여한 적은 없었고, 시위에 대한 무지로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직접 참여하고 몸으로 느끼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시위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장애인수용시설의 폐해를 알았고, 두 번째로는 부양의무제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저는 한 부모 가족이라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지원받는 것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뿐 왜 그런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야근이 잦아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던 달이 있었는데, 바로 그다음 달에 소득이 잡혀 지원이 중단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언제나 적정 수준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계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도 왜 제한이 있어야 하는지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이제야 부양의무제 때문에 나는 이러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지금까지도 부양의무제에 묶여 있는 게 제 현실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지원을 받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하는 것은 주로 사진 정리나 이동보조, 인권교육 보조 정도입니다. 다른 일은 시키는 일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권교육 보조가 제일 난감하였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이용자분들 중에는 장애가 심하여 음성언어를 할 수 없는 분이나,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눈치가 빠른 편도 아니므로 이용자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무리 몇 번을 들어도 잘 몰라서 인권교육 강사님이나 다른 분들의 말을 통해서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의사소통을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의 노하우를 배워 아주 조금이지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약간 넘은 상황입니다. 모든 일이 새롭고,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에도 장애인야학이 생겼습니다!

조은별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도전 의식이 많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서 활동하고 싶어
노들장애인야학에서 활동하며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활동도 했다가,
전장연에서 특판 전문 요원으로 활동했다가
지금은 김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김포센터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수용시설에 갇히는 것을 반대하고
누구나 지역사회에 나와서
당당히 살 세상을 꿈꿉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간 김포 지역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김포에는 최근 3, 4년간 탈시설해 자립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에 김포에 있던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비리횡령, 인권침해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주하던 사람들이 시설에서 못살겠다며 무작정 탈시설해 마로니에공원에서 농성했습니다. 김포는 그렇게 인연이 되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만들고 먼저 탈시설한 사람들이 김포에 있는 시설에 꾸준히 방문하고, 자립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런 삶의 투쟁으로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이제 10명을 넘었습니다. 지역사회로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참 좋은데,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수용시설에서 나와 자신의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좋았지만, 한글을 몰라 버스를 탈 수도 없고, 숫자를 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조작할 수 없고, 슈퍼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지내던 삶 바깥의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시설 밖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듯, 저상버스가 있는지도, 장애인콜택시가 있는지도, 김포시를 벗어나 서울로 가면 지하철이 있는지도, 반대로 강화도로 들어가면 아름다운 강산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없는 일인 거지요. 어느 곳을 가야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영화를 보는 방법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도요.

교육은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을 만들고, 바꿔가고, 삶을 그려내는 힘을 줍니다. 언젠가부터 노들야학에서 수업을 하며, 노들야학 학생들은 무엇이든 잘하는 척척박사인 줄만 알았습니다. '오전 10시 기자회견이 있어요.'라고 공지가 되면, 다들 전동휠체어로 삐빅 움직여 가고, 밤 10시까지 수업을 버티던(?) 천하무적 척척박사들.

김포야학에서는, 저녁 7시에 야구를 보러 가자고 하는 것도 늦어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 척척박사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아침도 시간 내기가 어렵고, 저녁도 시간 내기가 어려우면 우리는 언제 공부하고 일상의 혁명을 할 수 있을까, 속상도 하고요.

그러다 문득, 노들야학의 척척박사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겠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노들에서도 집에 일찍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무진장 많고, 아침에 못 나온다는 사람들도 무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박사님들과 함께하려는 노들의 이 악물음이 여기까지 온 거겠지요.

김포야학에는 아직,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손에 꼽히지요. 두 명쯤 될까요? 그러니 이제 기역, 니은, 디귿부터 1, 2, 3, 4를 합니다. 야학을 함께하는 재미난 사람들의 모습을 영상으로라도 보여주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김포야학이 많이 궁금하시면 꼭 놀러오세요. 야학하려고 엄청 큰 공간도 얻었습니다. 이전 개소식은 8월 말에 하고요. 야학의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주점도 합니다.

김포야학으로 놀러오세요~!

이전 개소식 8월 31일(목) 오후 2시

후원주점 9월 15일(금) 13시~22시

장 소 김포시 사우동 877번지
밀레니엄프라자 5층

후원계좌 농협 301-0158-5310-11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시)

문 의 031)997-6420

낭독 모임 '술독'

최한별

노들야학 음악반 교사이자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늘 서두르기만 해서
요즘엔 좀 느긋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별 쌤, 같이 낭독모임 하지 않을래요?"

지난해 봄, 교사회의를 위해 야학을 찾은 나에게 연극반 미진 쌤이 물어왔다. 야학 교사를 시작하고 그럭저럭 한 학기가 다 되어갈 즈음이었다. 변수가 많은 취재일 때문에 야학의 많은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고, 학교 다닐 때 국어 읽기가 걸리면(?) 묘하게 설렜던 기억에 덥석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만들어내게 될 색이
얼마나 다채로울지.
내가 그 색에 얼마나
매료될지.

낭독모임은 미진의 오랜 구상이 실현된 것이었다. 미진은 연극 수업을 하면서 학생분들이 다양한 이야기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희곡의 매력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다고 했다.

첫 모임에 가보니 사람이 꽤 많았다. 진수, 정민, 여의, 임당, 가비, 건우, 거기에 미진의 친구인 진석, 장웅까지. 당시 나는 야학 교사들과도 별로 친분이 없는 상황이었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있어서 좀 어색했지만, 우리 뭐 할까요? 하는 질문에 의견이 오가다보니 점점 신이 났다. 와,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땐 몰랐다. 우리가 만들어내게 될 색이 얼마나 다채로울지. 내가 그 색에 얼마나 매료될지.

우리의 첫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이었다. 나는 두 남성의 사랑을 받다가 요정들의 실수로 하룻밤 만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허미아 역을 맡게 되었다. 허미아가 되어 다른 등장인물들과 대사를 주고받다보니 점점 허미아의 입장에 빠져드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서로가 서로의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다. 미진의 포스 넘치는 디렉션은 이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두 번째 작품은 안톤 체홉의 『갈매기』였는데, 첫 작품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 연출이 더해져 사뭇 긴장된 마음으로 임했다. 하지만 많은 학생분들이 오시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 다음엔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학생분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기로 했다.

제일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었던 연습은 '잘' 읽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과거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지, 그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허미아의 성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내가 설득이 되어야 듣는 사람도 몰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희곡 낭독은 혼자 잘 읽으면 되는 행위가 아니었다. 우선은 내가 담당한 인물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야 하고, 다음으로는 다른 인물들과 또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 대화가 무대 위에서 관객과의 대화로 또다시 이어진다. 밖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안으로 들어가 나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 안과 밖, 수직과 수평 온갖 방향으로 에너지가 오가는 이 어마어마하게 동적인 행위! 이 다이내믹한 낭독의 세계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술독(책을 펴서 술술 읽는 모임이라는 뜻이지만 술독에 빠진 모임이라고 오해하셔도 될 것 같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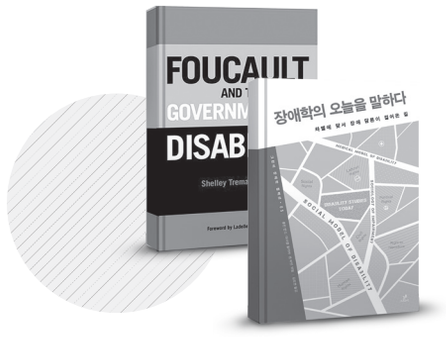
노들장애학궁리소,
너는 내 운명

'푸코와 장애, 그리고 통치',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세미나 참여 소회

한낱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동료들의 은혜로 안식년 중이다.
인권교육운동에 청춘을 바쳤고, 청소년 인권과
페미니즘의 만남에 관심이 많다. 겁 많고, 걱정 잘한다.
겉보기와 다르다.
'장판'을 떠올리면, 나를 웃음 짓게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 근황을 물어올 때, 빼놓지 않고 전하는 소식이 있다. 바로 안식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안식주도, 안식월도 아닌, 안식년! 이 단어 하나를 뱉을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되곤 한다. 마음 가는 대로 올곧이 쓸 수 있는 1년의 시간. 여느 인권단체들처럼 내가 일하는 인권교육센터 '들' 역시 늘 재정난에 허덕인다. 그러나 사람을 남기는 운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 쉼(멈춤)없이는 활동(움직임)도 없다는 깨달음을 그러모아 안식년 제도를 일단, 도입했다. 한 명의 온전한 쉼을 보장하고자 남아있는 활동가들이 노동/품을 조금씩 늘린다. 이 아름답고도 슬픈 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서로의 노고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제대로'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알람은 끄고 생활의 속도 늦추기,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던 것들 즉각 실행하기, 스쳐 지나갔던 것들 찬찬히-깊이 들여다보기. 그러던 와중에 마치 '운명'처럼 궁리소를 만났다.



수많은 마주침이 켜켜이 쌓이다보면 때때로 운명 같은 순간이 선물처럼 찾아온다. 김도현 연구활동가로부터 궁리소 창립 소식을 들었을 때, 딱 그런 느낌이었다. 어떻게 딱 내가 쉬는 타이밍에 궁리소가 생길 수 있나! 나와 장애학의 첫 번째 마주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권운동을 시작하며 장애해방학교를 수료했는데, 때마침(!) 『장애학 함께 읽기』가 출간돼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이 책을 공부했다. 장애학의 첫인상은 아주 매력적이었다. 장애학의 탄생과 전개는 여성학(페미니즘)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했다. 세상과 불화하는 존재가 더 이상 나를 문제 삼지 않고, 세상을 문제 삼기 시작할 때 강력한 힘을 가진 학문이 탄생한다. 페미니즘은 내가 나의 삶-고통-모순을 들여다보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인식의 창이자 언어다. 장애학 역시 시설에 유폐된 채 '널브러진 몸'이길 강요받는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든든하며, 예리한 사유의 도구가 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첫 만남 이후 인권운동을 이어가며 장애학과 장애운동이 분리되지 않는 순간들을 수없이 마주쳤다. 살기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장애학 공부였다. 그이들이 힘겹게 토해낸 이야기들을 뭉뚱그려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다. 촘촘한 언어의 그물망을 짜는 느낌으로 이따금 출간되는 장애학 책들을 읽었다. 장애학에 물들어갈수록 페미니즘이 '여성'들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듯, 장애학 역시 정상성의 세계로부터 밀려난 수많은 존재들을 연결시키는 공부임을 알아갔다. 안식년 동안 좀 더 마음을 기울여 공부하고 싶은 주제로 페미니즘과 장애학을 꼽은 이유다. 가장 바깥으로 밀고 나가는 사유의 힘. 이러한 공부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잔혹성을 직시하고, 잔혹성을 지탱시키는 주체로서의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심적인 진통이 뒤따른다. 진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같이 진통을 느끼고 증상을 이야기할 동료들이 있다면 통증을 견뎌볼 힘이 난다. 믿을 만한 동료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궁리소를 떠올렸고, 올 봄에 시작한 두 개의 세미나에 합류했다.

두 주 먼저 시작했던 푸코 세미나의 기억부터 떠올려본다. 거의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

인권이 말하는
책임(responsibility)이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함’이다.
이 책임을
함께 나누는 길에서
이따금 궁리소와
운명처럼 만나고 싶다.

여 신청을 했다. (전원 참여가 성사된 적은 한 번도 없다ㅋ) 다양한 위치에서 장애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모인 덕분에 텍스트 안팎을 넘나드는 토론이 가능했다. 박정수 연구활동가가 번역 출간을 준비 중인 책 『푸코와 장애, 그리고 통치』(Foucault and the Government of Disability)를 매개 삼아 푸코 철학과 개념을 통해 장애 이슈를 살피는 작업을 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긋는 지적/권력적 실천, ‘비정상’의 위치를 할당받는 장애인의 삶,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장애의 재배치 등등 몇 글자로 요약하면 한없이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들을 장장 10주간 나눴다.

10주의 시간을 거치며 넌지시 알고 있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촘촘해진 것 같다. 이를 테면, 그동안 내가 푸코의 개념을 ‘써먹는’ 경우는 주로 근대식 학교교육을 비판할 때였다. 학교 규율권력의 작동 방식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정상화된) 신체가 만들어지는가. 학교 사회를 유지시키는 권력관계의 양상(교사-학생 권력 분석)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학생인권의 근거와 언어를 보충했다. 꾸역꾸역 학교 안에 밀어 넣어진 존재들, 소위 ‘정상’ 대중에 대한 통치 테크놀로지 분석에 집중해왔다. 익숙한 분석에 장애의 축을 덧대자 또 다른 풍경에 조명을 비출 수 있었다. 비정상으로 걸러진 몸들은 교육이 아닌 ‘치료’로 분리/고립되었다. 그보다 낫다고 얘기되는 정상화-통합 담론은 교육(학교) ‘안’으로 장애인을 포함시켰지만, 기준 자체를 폐기하진 않음으로써 교묘한 배제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다. 권력-신체-정상성의 개념을 교육/학교가 아닌 의료/병원으로 이동해 적용해 볼 수도 있다. 참여자 중 한 분의 발제가 유독 기억에 남는데, 그 분은 자신의 어렸을 적 재활병원 경험(의사들에게 전시되는 몸)을 바탕으로 의료 권력이 어떻게 훈육 테크닉을 통해 ‘유순한 신체’를 만들어 가는지 말씀해주셨다.

3번에 걸쳐 짧고 굵게 진행한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세미나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오랜만에 고도로 집중해서 생각하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곱씹고, 다시 질문을 벼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장애담론이 걸어온 길을 역사적/쟁점적으로 서술한 논문들을 지금-여기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보는 시간이었다. 초창기 장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식론적 틀이었던 사회적 모델, 손상과 장애의 이분화된 구분 등이 지금은 비판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재검토의 맥락은 모두 장애인의 삶으로부터 비롯한다. 특정한 담론으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장애인의 삶이 있을 때 장애 담론은 요동치며 변화한다. 장애학의 존재 이유 자체에 운동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장애학의 변천사는 운동의 역사를 동시에 담고 있었다.

‘한 쪽 편만 든다’고, ‘편향적’이라고, ‘반쪽의 이야기만 담고 있다’고 페미니즘이나 장애학을 학문으로 정의하는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권교육을 할 때도 늘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한쪽 입장만 이야기 하느냐’는 상투적 반론을 만난다. 마지막 3회차 세미나 때 고병권 연구 활동가의 질문으로 시작해 ‘마이너리티 연구와 당파성’에 대해 나눈 대화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지만, 만약 그 법 자체가 폭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잣대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사용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이 무의미해지는 영역이 있다. 힘과 힘이 맞서는 영역, 흔히 우리가 ‘투쟁’이라고 말하는 영역일 것이다. 당파성은 내 입장만 맞는다고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 아니다. 존재를 건 싸움에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우리가 장애등급제 ‘개선’이 아니라 ‘폐지’를 외치는 이유). 학문과 삶이 분리/괴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학문이 누구에게 유리한가?’, ‘누구의 입장에 설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다.

고병권 연구활동가는 위의 논의 속에서 ‘시좌’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시좌란 보는 위치를 뜻한다. 피해와 고통의 지점에서 바라보는 것. ‘누가 제일 고통스럽고, 누가 제일 피해자인가’를 가름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고통을 셈하는 것(이해관계)이 아니라, 고통의 자리에서 인식과 사유를 시작하는 것. 아직은 어렴풋이 느낌만 오지만, 이 어렴풋함이 내가 장애학 공부를 지속하는 힘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다.

궁리소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 글 중 나는 이 문장을 가장 좋아한다. “노들장애학궁리소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던진 무수한 말들, 때로는 고함으로 때로는 신음으로 때로는 몸짓으로 던졌던 그 말들, 대부분 사회화되지 못한 채 바깥에서만 맴돌다 사라져버린 그 말들 위에 세워졌습니다.” 서러움과 비장함이 서려 있는 동시에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인권이 말하는 책임(responsibility)이란 ‘타인의 고통에 응답함’이다. 이 책임을 함께 나누는 길에서 이따금 궁리소와 운명처럼 만나고 싶다.

노들에서 생각해본 〈연극의 3요소〉

권은영

신재. 2015년에 노들장애인야학 교사를 했었고
프로젝트팀 0set으로 연극/공연 작업을 하고 있음

프로젝트팀 : 0set

0set은 전자저울의 버튼에서 빌려온 이름이다. 이 버튼을 눌러 저울 위에 놓인 물체의 무게를 0으로 세팅한다. 우리는 사회적·문화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명제'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0set 버튼을 눌러 공연의 재료로 새롭게 사용하고자 한다. 어떤 사람·물질이든 동등한 출발점을 가지는 순간이 존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팀 이름을 0set으로 세팅했다.

지난 7월 7일 노들장애인야학 4층 강당에서 〈연극의 3요소〉라는 연극을 공연했다. 2015년에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교사를 할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일이었다. (노들장애인야학에서는 언제나 상상 이외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올해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공연을 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첫째 대관 가능한 극장 중 배우인 문영민(휠체어 이용자)의 시설 접근성이 보장되는 곳이 없었고, 둘째 '장애'를 연극의 주요한 요소이자 문제의식으로 적극적으로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아는 한 노들장애인야학만큼 시설 접근성이 보장되면서 이 주제에 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공간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공연에 노들장애인야학만큼 적합한 '극장'은 없었다.

우리는 〈연극의 3요소〉를 통해서 "극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소위 연극의 3요소로 꼽히는 극장, 배우, 관객 그 어느 영역에서도 장애인의 접근성은 주요하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만 끊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듯이 연극 홍보 포스터와 플랜 카드가 여기 저기 달려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슨 공연을 볼까'라는 고민이 시작될 수조차 없다. 또한 장애인이 배우 또는 제작진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극단/공연 역시 극히 드물다. 극장은 누구에게는 열려 있지 않다. 우리는 그동안 관객 또는 예술가로 셈해지지 않았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연극의 주요 요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공연, 문자통역과 화면해설이 연극의 일부로 구성되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 취지에서 〈연극의 3요소〉는 노들장애인야학 4층 강당에 올려졌다.

비장애인 관객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도록 140cm 높이에 허공을 가로지르는 실을 설치했고, 관객들에게 '극장 경험'에 관한 설문지 작성을 요청했다. 그 후 휠체어 이용 배우인 문영민과 비장애인 배우인 성수연이 서로를 캐릭터로서 이해하고 접근해가는 '배우'에 관한 장면이 이어진다. 마지막에는 앞서 관객들이 작성한 극장 경험과 두 배우(그리고 제작진)가 경험한 극장 입장 불가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두 배우의 극장 입장 불가 경험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로 제출하려고 하며, 관객들에게 공동진정인이

되어달라고 제안하고 신청서를 받는 것으로 공연은 마무리 되었다.

관람한 관객들 중 70여명이 공동진정인이 되었고, 현재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놓은 상황이다. 우리의 목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학로 극장 시설 접근성 및 문화 개선에 관한 정책 권고를 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대로 된 대학로 극장 시설 접근성 및 문화에 관한 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얼마나 강제력 있는 정책 권고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답변을 받았다. 정책 권고가 되든 되지 않든 그 상황에 맞춰서 〈연극의 3요소〉를 통해서 던지고 싶었던 '극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극장 입장이 가능할 때 시민 입장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은 또 다른 공연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장애인도 동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아주 오래된(혹은 옳은) 것이어서인지 적어도 대놓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부분의 시설 및 문화는 물론 연극, 예술, 미학적인 측면에서도 장애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 부수적으로 다뤄지거나 시혜적으로 추가된다. 마치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이미 구성된 좌석도에 장애인석을 하나 둘 추가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될 우리의 연극은 이미 오래된, 하지만 언제나 새삼스러운 이 문제제기를 시설, 문화, 연극, 예술, 미학 등등에 끼워 넣는 시도이지 않을까 싶다. 노들장애인야학의 활동과 실천들과도 계속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연극의 3요소〉의 대사 중 일부이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인 두 배우의 극장 경험에 관한 글 중 일부를 덧붙인다.

KOR VOICEYE voiceye.com

문영민, 성수연 작

수연 6월 18일 오후 5시.

영민 우리는 서울연극센터에서 갔다. 보고 싶은 공연을 함께 골랐다.

수연 함께 고른 3편의 공연은 〈양배추의 유례〉, 〈안티고네〉, 〈찌질의 역사〉.
〈양배추의 유례〉는 왜 골랐었죠?

영민 제목이 재밌고, 포스터가 예뻐서요, 〈안티고네〉는요?

수연 음.. 〈안티고네〉라서? 그럼 〈찌질의 역사〉는요?

영민 우리 둘 다 원작 웹툰을 재밌게 봤기 때문이죠.

수연 우리는 함께 고른 연극을 함께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영민 〈양배추의 유례〉를 공연하고 있는 선돌극장으로 출발했다. 선돌극장으로 가는 길의 보도블럭은 울퉁불퉁했다. 엉덩이가 얼얼할 정도로 걸었다.

(수연, 영민 걸어나온다)

수연 근데 휠체어 타고 가는 거, 걷는다는 표현을 써?

영민 네. 걷는다고 말해요.

수연 우리는 함께 걸어 선돌극장에 도착했다.

영민 공연장은 지하였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우리는 함께 공연을 볼 수 없었다.

수연 그 다다음날 나는 혼자 〈양배추의 유례〉를 보았다. (손톱을 뜯는다)

영민 헐.

수연 미안.. 선돌극장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혼자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있긴 한데, 쓰질 않는다고, 누군가 막아놓았다고 했다. 공연은 정말 재밌었다. 영민도 좋아할 것 같은 공연이었다. 함께 보았다면 함께 할 얘기가 많았을 것이다.

(수연, 영민 한숨)

영민 우리는 조금 더 걸어 〈안티고네〉를 공연하고 있는 나온씨어터로 향했다. 나온씨어터는 건물의 입구부터 높은 턱이 있었다. 공연장은 지하였다. 티켓부스도 지하였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사실상 대학로 대부분의 소극장 시설의 현실이 이렇다.

수연 그런 극장들에선 좋은 작품들이 정말 많이 공연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좋은 작품들이다. 그 고민을 함께 나누러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영민 마지막으로 〈찌질의 역사〉를 공연하고 있는 수현재씨어터로 갔다. 가는 도중, 어떤 길에는 나무데크가 깔려 있었는데, 흔들려서 엉덩이가 아팠다. 왜 그런 걸 깔아놓은 거지? 그런 걸 걷는 기분은 좋아요?

수연 딱히.. 사실 있는지도 몰랐어요.

영민 수현재시어터 입구 앞에 있는 보도블록은 너무 높아서 휠체어로 올라갈 수 없었다. 빙 돌아보니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단차가 낮은 보도블록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 큰 돌과 배너가 놓여있었다. 우리는 다시 돌았다. 단차가 낮은 곳을 찾았다. 그렇게 빙 돌아서 입구로 들어갔

다. 헉헉. 매표소는 3층이었다. 건물 내에는... 엘리베이터가?

수연/영민 있었다. 오~~

영민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표소가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매표소 앞에 있는 좌석배치도를 확인했다. 휠체어석은 없었다. 직원에게 휠체어를 타고 객석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직원의 도움으로 좌석에 옮겨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수연 도움? 도움이 무엇인가. '돕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본다.

수연/영민 돕다. 돕:따.

영민 (힘주어 또박또박) 동사. 남이 하는 일이 잘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

수연 공간으로 들어가는 일이 누군가에겐 애초에 잘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곳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편하게 만들어진 곳에서, 들어가는 게 불편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게 하는 게 왜 돕는 거지?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아닌가?

영민 맞다. 돕는다고 해도, 사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른다. 2013년 5월 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크라이스앤위스퍼스〉를 보러 갔다. 무대에 객석을 만들어 놓은 구조의 공연이었다. 구조상의 문제로 휠체어로는 객석이 있는 공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공연 스텝은 나를 도와 팔짱을 끼고 부축해 줄 테니 걸어 들어가자고 이야기했다.

수연 헐, 일어서서 걸어가자고?

영민 네. (영민, 수연 절래절래)

영민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팔짱을 끼고 부축해준다는 도움이 도움인 건가. 나는 결국 직원에게 안겨서 객석에 들어갔다. (조금 쉬고) 공연이 재미있어서 참았다.

수연 재미없었으면?

영민 재미없어도 참았다.

2014년 2월 8일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 〈닫힌 문〉을 보러 갔다.

수연 닫힌 문.

영민 공연 시작 시간은 세 시였는데 10분 늦게 공연장에 도착했다. 늦게라도 입장할 수 있느냐는 말에 공연 스텝은 휠체어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수연 닫힌 문.

영민 일반 관객은 2층 통로석으로 중간입장이 가능하지만 휠체어로는 2층 통로석으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연 이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인 거네?

영민 네. 나는 같은 티켓값을 지불하고 중간입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의했고, 결국 원래 예매했던 좌석에 입장할 수 있었다. 도움과 항의가 없이는 접근성이 가능한 극장에서도 완전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내가 가지 말아야할 곳에 가는 것인가.

극장들은 장애인이 극장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2017년 7월 1일.

수연/영민 충무아트센터 중극장에 〈킬미나우〉를 보러 갔다.

VOICEYE KOR voiceye.com

수연 극장에선 우리의 좌석을 미리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친절했다. 하지만 영민이 앉을 좌석에 대한 설명을 영민에게 하지 않고 나에게 한다. 휠체어를 이렇게 올려서 여기에 두면 되고, 보호자는 여기에 앉으시면 된다고 한다. (짧은 한숨) 영민은 환자가 아니고, 나는 보호자가 아니고..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영민 동행인?

수연 동행인 좋다. 친구?

영민 친구 좋다.

수연 아마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공연도 보고, 밥도 먹고, 산책을 하기도 할 것이다. 나는 영민을 돕고 싶지 않다.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있고 싶고, 자주 보고 싶다. 그런데 이곳이, 물리적으로, 나에게 훨씬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 영민을 만나기 전까지 내 눈에는 수많은 턱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에겐 턱이 아니었으니 턱이 턱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다.

수연/영민 턱.

수연 이라는 말은 나에겐 그냥 비유로 쓰는 게 더 익숙한 단어였다.

너네 학교 입시문턱 엄청 높지 않아?

영민 이 더위도 곧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이 다가오겠죠?

수연 근데 진짜 물리적인 턱들에 둘러싸여있는 거리, 이 세계를 제대로 보게 되니 뭐랄까

수연/영민 턱 (어이없다는 듯이)

수연 우리 둘 모두에게 이곳이 자연스러운 곳이었으면 좋겠다. 영민이 내게 밥을 사주었는데 카드에 서명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회전문에 있는 장애인버튼을 누르고 함께 천-천-히-

영민 들어갔는데, 옆문으로 들어오지 굳이 왜 거기로 들어오냐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연 우리가 서로에게 빚지는 기분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고 싶은 공연을 보러 갈 때 영민에게 같이 가자고 고민 없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될 때 고민 없이 영민을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영민, 수연 하이파이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글이 적혀있다.

영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중략. 이곳은 누구나 들어와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고, 하고 싶은 말도 남길 수 있는 상호소통의 공간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귀담아 듣는 것이야말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수연, 일어선다.

수연 이것이 우리의 생생한 의견이다. 전국 100석 이상 극장들의 시설접근성에 관한 전수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길 바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소극장들을 접근 가능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길 바란다. 향후 건설될 공연장의 경우 설계 단계서부터 세심하게 접근성이 고려되길 바란다. 넓은 통로, 턱없는 무대, 경사로 등을 갖추어, 접근성이 고려된 극장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극장이다. 영민, 앞으로 나간다.

영민 장애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인식에 대해 극장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 극장 관계자들에게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신설하고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4조에 문화예술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은 종례 동법 시행령 제 15조보다 구체화하여 별도의 하위 법령을 입법해야 한다.

수연 음.. 좋은 말이네요. 하하하. 쉽게 얘기한다면?

영민 추상적인 표현 말고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넣어야 한다는 말이다. 강제력 있게.

수연 음.. 예를 든다면?

영민 공공 기금을 받는 공연의 경우 최소 몇 회 이상 문자통역과 화면해설이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과하거나 이상적인 것인가. 솔직히 애초에 대학로 대다수의 공연장에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인지 화가 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나는 화조차 내지 않을까.

수연/영민 악~~~~~!!

영민 나는 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까. (쉬고) 생각하면 안 되나?

(영민, 수연 자리를 옮겨 선다)

수연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있다.

영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바라봄)

수연 지금 우리가 연극을 하고 있는 이 곳 노들장애인야학 2층에는 이런 말이 적혀있다.

영민/수연 (수연은 수화로 말한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VOICEYE
voiceye.com

2017년 7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강남훈•강문형•강병완•강복원•강복현•강성윤•강수혜•강영미•강용원•강정자•강주성•강현욱•강희관•강희연•고경신•고경화•고동수•고명순•고명희•고승현•고아라•고재현•고정화•고제헌•공공운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공명렬•공선화•공정옥•곽노근•곽상아•곽성자•곽영미•구경민•구수준•구승기•구자옥•구정서•구현아•궁경혜•권경숙•권기원•권기진•권미경•권병주•권순만•권순성•권영주•권영진•권용희•권익재•권진영•권태국•권혁은•권현기•김가경•김각균•김건옥•김건형•김경은•김경혜•김관희•김광국•김규태•김근식•김금례•김기륭•김기성•김기오•김남수•김대희•김도경•김도현•김동은•김동진•김두경•김명학•김명화•김문수•김문호•김미선•김미성•김미영•김미영2•김미주•김미현•김민•김민림•김민아•김민아2•김민영•김민자•김민희•김범식•김병모•김보라미•김보연•김보영•김봉덕•김봉석•김부연•김상원•김석규•김선미•김선아•김선영•김선영2•김선옥•김선화•김선희•김설민•김성미•김성은•김성현•김성희•김세영•김소명•김소희•김수경•김수영•김수한•김수현•김숙이•김순남•김승혜•김아람•김애경•김연성•김연수•김연옥•김연정•김연지•김연희•김영미•김영민•김영선•김영승•김영옥•김영희•김용남•김용성•김용우•김용욱•김용진•김용진2•김우경•김원숙•김유미•김유정•김윤경•김윤석•김윤자•김윤정•김윤진•김은미•김은주•김은희•김이종•김인숙•김인숙2•김재경•김재양•김재희•김정민•김정하•김정현•김종윤•김종호•김준•김준호•김준휘•김지민•김지숙•김지순•김지연•김지연2•김지영•김지예•김지은•김지현•김지환•김진수•김진수2•김진우•김창배•김태승•김태인•김태훈•김판균•김푸른솔•김필순•김한민•김현령•김현순•김현식•김현영•김현주•김현지•김현화•김형배•김혜경•김혜미•김혜옥•김혜진•김호진•김홍희•김희정•김희창•김희헌•나선영•나해니•남대호•남두형•남정민•남지현•남효진•노경애•노미경•노상경•노의현•노현택•노혜련•대한불교조계종 대성사•도회선•류명옥•류승화•류정숙•류정하•류향희•류혜인•마미주•맹보명•문건화•문경희•문병준•문상태•문성원•문소리•문예진•문지의•문창배•민아영•민혜숙•박경석•박경숙•박경아•박경혜•박경화•박계선•박광수•박금숙•박누리•박다정•박명숙•박명숙2•박민경•박민영•박민우•박보건•박보라•박상일•박상호•박서희•박선예•박선은•박성욱•박성환•박성희•박세단•박세호•박소영•박수인•박수진•박시백•박애경•박연희•박영민•박영환•박완신•박은미•박은정•박은정2•박장곤•박장근•박재국•박정수•박정원•박정희•박종진•박종철•박종필•박준호•박지민•박지영•박진우•박찬양•박철우•박태만•박하순•박현미•박현민•박현희•박흥석•박희선•방복순•배경원•배덕민•배문섭•배승천•배안나•배윤주•배진숙•백미라•백수경•백승혜•백연희•백윤희•백재선•사회적기업노란들판 •서기현•서남교•서동석•서명순•서명아•서미선•서민영•서민희•서봉경•서옥영•서유나•서은수•서정웅•서주형•석지윤•선혜란•성정헌•성창기•성희옥•소현미•손동각•손병갑•손성권•손성한•손은경•손은주•손자경•손제주•손주영•손준희•손혜연•손환목•손희경•송기호•송무림•송상훈•송선화•송영란•송우영•송종호•송창국•송현정•신미현•신복순•신봉준•신수정•신수정2•신숙희•신순영•신연실•신영근•신원정•신은덕•신은희•신임식•신진•신현훈•심미경•심보름•심선진•심은선•심이영•심인섭•심정구•안경모•안남희•안문필•안바라•안병호•안석호•안선영•안소진•안영춘•안정애•안정원•안정은•안종녀•안준희•안지혜•안향미•안희옥•양석주•양수경•양수정•양운근•양유진•양이승•양인순•양정화•양현준•어수진•엄순영•엄재균•엄주철•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준민•오미영•오민정•오보람•오세령•오영철•오원주•오은영•오장환•오정자•오정희•오지은•옥샘•우승명•우시우•원성현•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위순월•유남숙•유문수•유미선•유보배•유선희•유애리•유영순•유창재•유혜경•유희준•윤기범•윤길중•윤동구•윤명섭•윤미라•윤미선•윤봉섭•윤석규•윤선기•윤수현•윤승용•윤승원•윤이용•윤인진|•윤정미•윤정민•윤정은•윤정임•윤종술•윤준서•윤호진•윤화숙•윤희•이강수•이건학•이건호•이건희•이경덕•이경아•이경운•이경훈•이경훈2•이경희•이계삼•이광만•이광재•이규식•이근희•이금희•이금희2•이기순•이길용•이나라•이동은•이동진•이두혁•이라나•이라라•이리나•이미나•이미리암•이미영•이미영2•이미정•이병욱•이비함•이상림•이상준•이서윤•이서준•이석원•이선진•이선희•이선희2•이성호•이성희•이소영•이소정•이수연•이수영•이수정•이수현•이순웅•이승민•이승훈•이알찬•이연옥•이연주•이영란•이영미•이원진•이유미•이유진•이윤경•이윤옥•이윤주•이윤지•이은숙•이은자•이은정•이은정2•이인영

후원방법 안내

❶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야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❷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❸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이장우•이재령•이재승•이정실•이정은•이제성•이제헌•이종국•이종란•이종실•이종헌•이주오•이주옥•이준길•이준범•이지연•이지영•이지은•이지은2•이지혜•이지환•이진실•이진영•이진영2•이진주•이찬미•이철우•이태곤•이학인•이한숙•이한호•이현명•이현숙•이현아•이현우•이현진•이현진2•이혜정•이호연•이호영•이호중•이회국•이효정•이희은•임경희•임나미•임덕심•임동근•임소연•임원택•임은영•임은정•임인자•임주현•임채원•임춘학•임하연•임혜숙•장경주•장귀분•장근영•장명희•장미희•장상순•장선영•장성권•장성아•장순임•장옥란•장원•장정환•장지희•장혜미•장효정•전경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전권세•전기성•전대진•전문갑•전미라•전미영•전민숙•전상우•전성자•전욱•정규명•정다운•정대수•정대훈•정동식•정명진•정미란•정민구•정병순•정상엽•정상욱•정선애•정선옥•정성락•정성철•정송이•정연숙•정영란•정영석•정영자•정영호•정용균•정용안•정용일•정용훈•정우종•정운영•정유진•정은경•정은미•정익화•정재훈•정종권•정종화•정종훈•정지영•정지혜•정진영•정진이•정창조•정택용•정현강•정현진•정현찬•정혜림•정희덕•조경애•조미숙•조미숙2•조미연•조미정•조사랑•조선호•조성진•조원일•조윤경•조윤실•조윤정•조은주•조은진•조응현•조이라•조자영•조재범•조한나•조혁진•조현경•조현수•조혜민•종로장애인복지관•좌동엽•좌미경•주상연•주상희•주승노•주영은•주용춘•주은아•지덕근•지세진•지암메디테크•지영숙•지혜롬•진영욱•차순정•차종원•채이배•천성호•천영희•천진수•최귀선•최동호•최미란•최병훈•최병희•최보경•최석문•최선아•최선호•최승우•최영숙•최영식•최영은•최영자•최우영•최윤선•최은숙•최은아•최재호•최재희•최정민•최정원•최정은•최정은2•최정희•최찬일•최하정•최한별•최현진•최혜영•하경남•하금철•하정자•한경훈•한남희•한명숙•한명희•한상배•한상엽•한선희•한성안•한송희•한양자•한주영•한혜선•한혜원•한희자•허보영•허숙자•허신행•허영신•허완수•허정일•허진태•허창•허효재•홍도순•홍성미•홍성호•홍송대•홍순희•홍영선•홍영희•홍은진•홍주영•홍진표•홍철기•홍혜리•황무초(무밍)•황성윤•황승미•황정희•황진미•황하연•황혜전•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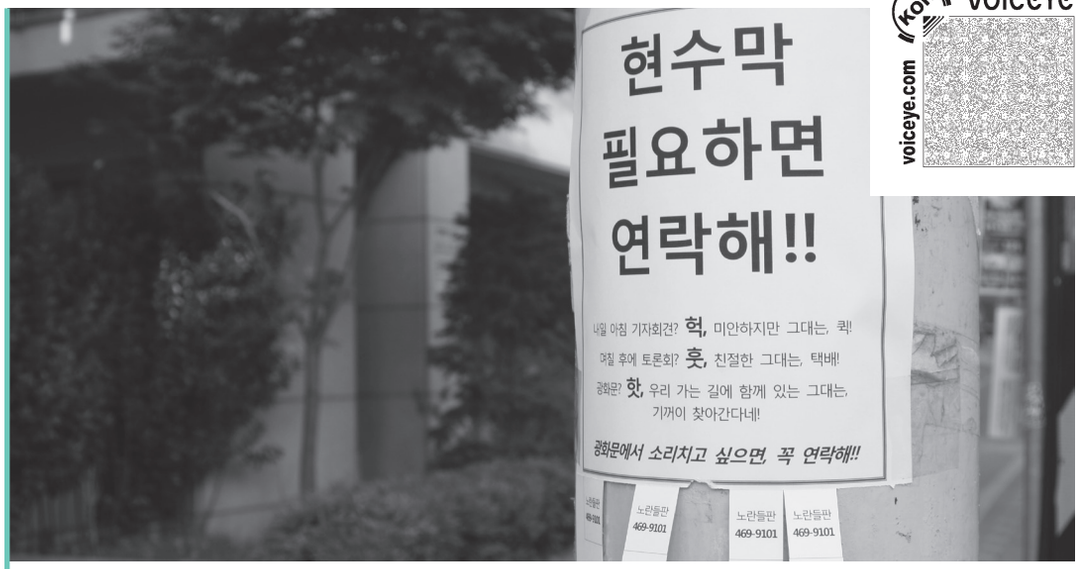
강귀화•강수혜•고명선•곰한복•구자숙•김미선•김병헌•김선심•김용철•남완승후원금•류동훈•박경선•박현규후원금•서금석•손애리후원•신동길•안성희•엠알엠글로벌•오선실•윤종배•윤지형•이동환•이수영•이연옥•이한진•이현숙•이형욱(부개성누•이효상•재)아름다운동행•전준규•정옥순•조광배•착한콜위드고•최상희•허병권•황미향•황재숙•희망열차(김낙현)

〈노들로 들어온 선물〉

5월 • **한살림** 쌀 3푸대 / **스파인2000** 페인트 7통 / **안선영** 좌훈기, 책, 의류 외 여러 생활용품 / **과일먹은떡볶이 손성한** 떡볶이
김희창 지인 비비고 10박스

6월 • **한살림** 쌀 3푸대 / **이준영** 그림책, 이불, 장난감, 코팅기 외 여러 생활용품
노수희 두릅 한 박스 / **어린이어깨동무** 수박
㈜주양제이앤와이 보리국어바로쓰기사전 15권 /
자연마을 아이크림 65개, 필링젤 60개

7월 • **한살림** 쌀 3푸대



VOICEYE KOR voiceye.com

내일 아침 기자회견! 헉, 미안하지만 그대는 퀵! 며칠 후에 토론회? 훗, 친절한 그대는 택배! 광화문? 핫, 우리 가는 길에 함께 있는 그대는,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싶으면 꼭 연락해!!!

꿈꾸는 현수막 노란들판

주문·문의 02-469-9101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격(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ttp://www.ncil.or.kr
이메일 nodl@hanmail.net **트위터** @nodlcil
전화 02)766-9103 /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ttp://www.420pan.or.kr/
이메일 centerpan@420pan.or.kr
전화 02-6082-6420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 02-766-9120 / **팩스** : 02-6937-1701 / **이메일** nodeul@gmail.com

침묵하고 있으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까 봐, 낙인찍힐까 봐, 혹은 괴로워질까 봐 말을 삼간다. 그러나 말하지 않고도 그런 부당함을 이미 겪었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보다 두려움을 더 경외하게 되었다. 여자들의 억눌린 말들이 밖으로 나갈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주기를 원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그 말들을 찾아내서 바깥세상으로 끄집어내 줘야 한다.

『나를 대단하다고 하지 마라』, 책세상, 2015
지은이 해릴린 루소, 옮긴이 허형은

노들바람은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10,000